

사포의 서재 2025

우물가의 여자, 여자들

조)E|—예지|—채원|—하울|—화자
쿠|—노을|—마셀린|—유자

기획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사포의서재

이 책은 한국레즈비언상담소 문화기획팀 사포의서재에서 기획한 포토에세이 워크숍 ‘우물가의 여자, 여자들’(2025)의 결과를 담은 기록집입니다. 황예지 작가의 세심한 자문 아래, 열 명의 상담소 회원들이 각자의 삶과 시선을 사진과 글로 풀어냈습니다. 여성/성소수자로 살아온 경험과 감정을 포착한 작업들이 서로 이어지며 기록집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상담소 소모임 <우물가의 여자들>로 글쓰기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본 | 황예지

수집과 기록을 즐기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그들의 습관 덕분에 자연스레 사진을 시작했다. 사진과 에세이, 인터뷰 등 다양한 형식을 다루며 개인적인 서사를 수집하고 있다. 개인의 감정과 관계, 신체를 통과해 사회를 바라보고자 한다. 사진집 『mixer bowl』과 『절기, season』 산문집 『다정한 세계가 있는 것처럼』, 『아릿한 포옹』을 출간했다. 개인전 <마고, mago>, <부족한 별자리>, <수프 같은 것: 나는 아글라야 페터라니를 찾아가기로 한다>를 열었다.

<http://yezoi.com>

<https://www.instagram.com/yezoi>

우물가의 여자, 여자들

쿠
—
노
—
을
—
마
—
셀
—
린
—
유
—
자
—
준
—
O
—
E
—
예
—
지
—
채
—
원
—
하
—
울
—
화
—
자

차례

응원하는 마음 이 작용이, 이 사랑이 ... 황예지 5

고래가 되어 너에게 갈게 ... 쿠 6

저무는 시간 앞에서 ... 노을 20

돌고 돌기 ... 마셀린 34

애도와 기억 ... 유자 44

별리 ... 조JOE ... 62

무구의 서 ... 예지 72

여름 일기 ... 채원 88

폭풍 속에서 나비와 함께 춤을 ... 하울 100

우리 딸의 딸 ... 화자 114

고양이 같은 사람들이

금방

울고 웃으면서

4주간 글을 썼다.

응원하는 마음

어느 날, 한 친구가 아름답고 세련된 것들만이 보이는 이곳에서 촌스럽고 투박한 것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고 내게 물은 적이 있었다. 빼어난 답을 찾고자 내게 물어본 건 아니었겠지만, 이따금씩 그 질문이 생각난다.

<우물가의 여자 여자들> 첫 수업 시간. 각자 어디서 구르고 다치고 왔던 건지 경계심과 긴장감이 감돌았다. 아마 우린 여름에 처음 만났던 것 같은데. 책을 마무리하는 지금. 겨울 바람과 닮아있었다.

각자의 단어와 장면. 이야기를 꺼내면서 방어는 속수무책으로 허물어졌다. 고양이 같은 사람들이 금방 울고 웃으면서 4주간 글을 썼다. 이제는 그 글을 그러모아 서로 같이 살겠다고 한다. 나는 이 작용이, 이 사랑이 참 촌스럽고 투박해서 그저 웃음이 난다.

제철 무를 또박또박 썰어 된장국을 끓이듯, 앞으로도 계속 글을 쓰셨으면 좋겠다. 그 맛을 나누며 우리가 죽지 않고 애도하며 같이 늙었으면 좋겠다.

황예지

고
래
가
되
어
너
에
게
갈
게

쿠

부단히 바라본다 너머를 보기 위해.

나를 향해 걷는다 너에게 닿기 위해.

잃어버린 유토피아

이 꿈을 너댓 번은 꾸는 것 같아. 그때마다 꿈 속에서의 나는 여전히 작고 어렸는데, 나를 도와주는 그 사람에게 늘 나를 온전히 맡겼어.

5살쯤, 썰매장이었다. 낮선 어른과 있다. 그를 따라 포장마차에 들어간다. 의자에 올라 앉아 주위를 둘러보니, 주황빛 천막 안이 희뿌연다. 국수가 놓여졌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따뜻한 국물 한 입, 두 입. 몸이 따뜻해질 쯤 선생님이 왔다. 선생님 손을 잡고 친구들에게 돌아간다. 내가 어디서 길을 잃었나, 어쩌다 무리에서 떨어졌던가. 포장마차 전후의 장면은 비어있다. 당황스럽거나 불안했던 느낌도 없다. 천막 안의 따스함, 어린 나를 챙겨준 그 아저씨의 부드러움만이 남아 있다.

언제나 그 때가 편안했어. 그냥 모든 게 자연스러웠달까. 근데 언제부턴가 이게 내 기억인지 꿈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어. 태초의 기억이라 이 꿈을 꾸는 걸까, 우연한 꿈이 반복되어서 태초의 기억으로 자리잡은 걸까? 앨범을 뒤적여보니 그 무렵 썰매장에서의 사진이 세 장 남아 있어.

어느새 훌쩍 자란 내게 믿음이 찾아왔어. 교복을 입던 시절

이야. 선의는 선의로 돌아오고, 악의는 악의로 돌아간다는 믿음이었지. 착한 말을 하면 예쁜 말이 돌아왔고, 친구를 괴롭히면 미움을 받듯 아주 기본적인 규칙이었어. 다만, 이 모든 것에 개입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고 믿어졌어. 그게 하느님이든 하나님이든 절대전능한 존재는 기꺼이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하리라고 믿었어.

그 믿음은 생각보다 금방 깨졌어. 그게 언제였더라. 응, 그 때였던 것 같아.

무더운 여름, 주말이었다. 1리터짜리 우유를 사고 시장 중반에 턱이 높은 계단을 오른다. 마트에서 우리집까지의 지름길이었다. 우유가 시원해 품에 안고 걸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와 묻는다.

"여기서 □□ 초등학교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해요?"

"□□ 초등학교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 어찌지. 조카가 소풍을 가서 이걸 전해줘야 하는데."

"아 그러세요?"

"네, 이제 출발했을 것 같은데.. 저기 ○○으로 소풍 간다고 했거든요. 혹시 ○○으로 같이 찾으러 가줄 수 있어요?"

그는 곤란하고 난처해보였다. 조카에게 뭔가를 전해줘야 하는데, 이미 소풍을 떠났고 정확한 위치를 몰라 찾아봐야 한다고 했다. 도와줄까 말까. 우유팩에 송글송글 물방울이 맺혔다.

"어... 제가 지금 우유를 사고 집에 가는 길이라서요. 그러면 우유 갖다 놓고 다시 올게요."

냉장고에 우유를 넣었다. 조금 찝찝한 마음이 들었지만 다시 운동화를 신었다. 우리집 골목을 나와 바로 옆 그 골목으로 갔다.

"왔어요? 생각해봤는데, 택시 타고 소풍 장소로 바로 가서 찾아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턱이 높은 계단을 다시 내려갔다. 뒤따라 걸으며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나는 택시에서 조용히 기도했다. '가르쳐 주신 대로 친절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요. 저는 이 아저씨를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니 저를 지켜주세요.'

이때 믿음이 깨졌어. 조각난 믿음에 마음이 더 아팠어. 그 때, 사람은 선의를 왜곡할 수도 있고, 때로 악해질 수도 있어. 날 때부터 악한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신은, 지가 신이라고 떠받들어 진다면 그럼 안되는 거잖아. 선의는 선의로 돌아오게, 악의는 악의로 돌아가게 만들어야지. 그럴 의지가 있기는 한가? 그럴 능력이 없다면 그건 신이 아니야. 신은 없는 거야.

교회쟁이들을 내심 조롱했어. 불신지옥 같은 소리 하네, 바보들. 절대 선도 없고 사랑의 신도 없는데. 나를 지켜보고 또 지

켜주는 존재 따윈 없는데. 모든 건 그냥 우연이고 각자의 결정에 따른 결과일 뿐이야. 이 세상은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인과관계가 다야. 나는 과학을 좋아했고, 과학의 길을 걸었어.

그런데 이상하지. 그렇게 신을 부정하면서도,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면 코 끝이 찡해졌어. 신실하고 평온한 그 모습만으로도 감동이 전해지나봐. 어떻게 한 방울의 의심 없이 온 마음 가득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저 사람은 바보일리 없는 데. 이따금 내 발걸음은 성당으로 절로 향했고, 책과 핸드폰 너머에서 신이란 무엇인지를 찾았어. 신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말이야. 없는 걸 어떻게 찾지? 왜 찾지?

실은 나를 속이고 싶었던 것 같아. 신 따위 없다고 말야. 사실 나는 내가 가장 미웠어. 멍청할 만큼 순진했던 내가 가장 수치스러웠다. 어떻게 그렇게 등신 같을 수 있을까, 누가 봐도 뻔하잖아, 스스로를 구덩이에 빠뜨린 거야, 착한 척해서 벌받은 거야, 엄마 아빠가 걱정할테니까 없던 일로 해, 나만 조용히 지나가면 세상에 없던 일이 되는 거야, 그래 없었던 일이야.

믿음에 대한 배신감은 철저히 남겼어. 2천년 간 전해져 온 위대한 책, 신의 가르침이란 걸 따랐는데 결과가 이따위라면 내 배신감과 분노, 상처와 슬픔은 모두 정당했어. 그러니 저주

의 대상을 살짝 틀어도 돼, 신에게로. 그렇게 저주든 화풀이든 실컷 하고 속이라도 시원하던지, 그동안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는 듯해.

또 다시 나에게 속고 싶지 않아.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믿어주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에게 더더욱 진실하기? 나를 더 깊이 들여다보기? 때때로 내가 선의를 원해서 선의를 베풀고, 악의를 피하려고 악의를 숨기는 건 아닌지 생각해보곤 해. 그러면 좀 어때. 다 괜찮다고 받아주고는 싶은데.

낮선 사람의 호의에 나를 맡겨도 안전했던 그날이 그리워서 자꾸 그 꿈을 꾸는 걸까. 부드럽고 따스했던 그곳이 나의 유토피아였다.



물래 다녀온 세계

“자, 멀리 보세요.”

호흡기를 물고 난간에 서니, 발 밑으로 질푸른 물 뿐이다. 둘째날이긴 했지만 진짜 바다는 처음인데, 정말 이렇게 바로 입수인가? 작은 물결에도 배가 흔들린다. 왼손은 기둥을 움켜쥐고 오른손은 입에 문 마스크와 호흡기를 세게 누른다. 전날 입수하다 마스크와 호흡기가 밀려 순간 앞이 안보이고 코와 입으로 차가운 물이 들어왔던 감각이 떠오른다. 조금만 더 늦었다면 패닉을 느꼈을 것 같은 순간. 당황할 새도 없이 강사님에 의해 수면에 바로 섰다. 잔물을 뱉어내고 마스크와 호흡기를 다시 껴다. 그 느낌을 다시 느끼고 싶지 않아, 그러니 한 번에 잘하자.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 멀리 보고, 다시 들이쉬고 하나.. 둘.. 셋!

침—병!

수많은 공기방울이 온몸을 타고 오르며 시야가 가려진다. 과라라라라라 먹먹하게 시끄럽다. 호흡기를 꼭 깨문 입으로 필사적으로 숨을 쉰다. 쉬이- 쉬이, 쉬이- 쉬이. 어느새 공기방울이 잦아들고 숨소리만 남는다.

스쿠버다이빙은 수트를 입고 장비를 착용하다 진이 다 빠져. 두껍고 짙은 수트를 입으려 킁킁거리다 매번 허벅지가

손톱에 긁혀. 허리에 납덩이 벨트를 메고, 장비가 연결된 조끼를 입고, 오리발을 끼고 산소통을 메고 마스크를 써. 코까지 막는 마스크라 입으로만 숨을 쉬어야 하는데, 꼭 조이는 수트 때문에 헉헉거리게 돼. 조끼에 공기를 채우면 점점 겨드랑이가 들러. 무겁지만 나를 숨 쉬게 할 장비들. 신기하게도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천근만근 같던 장비의 무게가 사라져. 물의 부력이 장비를 대신 들어준다. 수트의 소재 덕분인지 물에 들어가면 숨쉬기도 한결 편안해져. 그러니 이제 몸에 힘을 빼도 돼. 이제 진짜 다이빙의 시작이야.

물 속에선 선 채로 공기를 빼면서 서서히 가라앉아. 천천히 내려가다 보면, 어디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중간 지점이 있어. 주변에 구조물이 없어서 사방이고 아래고 다 똑같은 모습이야. 뿌옇고 미세한 부유물 외에는 아무 것도 안보여. 여기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 희미한 빛을 향해 올라가는 수밖에 없겠지.

이제 머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자세를 바꾸고 오리발을 휘적이며 더 깊이 들어가. 강사님의 왼팔을 꼭 잡고, 내 안에 두려운 마음을 살살 달래면서 말이야. 천천히 깊게 호흡하면서 천천히 유명하면 돼. 빠르게 헤엄칠 필요도, 누구와 경쟁할 이유도 없어. 숨을 쉬면서 마스크 너머로 펼쳐진 세상을 보는 것. 그게 다야. 여기선 물 밖의 세상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

강사님이 가리킨 곳을 보니 저 멀리 물고기가 보이기 시작

한다. 은빛 반투명한 몸에 가로로 흐릿한 선이 있는 물고기. 저기 또 물고기가 보여. 이번엔 노랑검정 줄무늬가 있는 물고기! 얘는 몸통이 세로로 납작해. 이번엔 제법 큰 물고기다! 푸른색 바탕에 노란빛이 감도는데 색깔이 참 오묘해. 자세히 보니 이마가 튀어나오고 어딘가 못생겼는데 그래도 귀엽다. 의도치 않게 그쪽으로 향했는데, 그 물고기가 천천히 산호초 뒤로 숨었어. 몸을 잘 가누지 못해 또 그쪽으로 향했는데, 내가 가까워지니 이번엔 아예 포록 하고 도망갔어. 방해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미안. 근데 너도 날 의식하고 있었구나? 물고기와 술래잡기라도 한 듯, 이것도 교감이라며 속으로 잔뜩 신이 났다. 이거 완전 '니모를 찾아서'잖아!

여기 제주 서건도 앞바다에는 말미잘 동산이 있어. 바보, 똥개, 해삼, 말미잘의 그 말미잘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때 처음 봤어. 이렇게 예쁜 건 줄 알았다면 칭찬의 의미로 썼을텐데. 수많은 촉수가 코랄빛, 연노란빛을 반사시키면서 물결에 하늘거리는데 그 모습에 시선을 땔 수가 없었어. 지금, 바로 여기서만 볼 수 있는 광경을 두 눈에 꼭꼭 눌러 담았어.

30분 간의 탐험을 마치고 빛을 향해 천천히 올라왔어. 배에 올라 코로 숨을 쉬고, 다시 천근만근 무거워진 장비를 벗어. 호흡기를 꼭 물었던 턱이 얼얼해. 나만 몰래 다른 세계에 다녀온 듯 멍하고 아득해.



고래가 되어 너에게 갈게

살랑이는 바람이 코 끝을 스쳐
선선하고 부드럽게
열은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려
이내 눈을 감아
여전히 바람을 느끼면서
기분 좋게 미소 지으면서
한참을 그렇게

나는 고래의 등 위에 누워있어. 아무리 튕굴어도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나만의 침대. 부드럽고 단단하게 받쳐주는 너의 등이 좋아. 알맞은 편안함. 양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다리는 꼰 채 발끝은 기분 좋게 까딱까딱.

너는 깊은 바다를 유영하듯 하늘을 날고 있어. 상공을 매끄럽게 가르며 앞으로 앞으로. 늦지는 않을까 길을 잃지는 않을까 어디로 가야할까 하는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이 말야. 그래, 세상에서 가장 큰 너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니. 저 멀리 철새떼나 저 깊은 곳 물고기떼와는 다르잖아. 누굴 따라갈 필요도,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이 그냥 네가 가는 길이 너의 길이지. 너만의 길. 너의 목적지가 어디든 날 어디로 데려가든

네가 이끄는 대로 난 가만히 가만히.

눈을 떠보니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밤이야. 크고 작은 별들이 촘촘히도 박혀있다. 우주의 찬란한 작품을 같이 보자. 이 아름다움을 누리며 이름 모를 별들과 같이 놀자. 별에 닿을 듯 팔을 쭉 뻗고 별 하나하나를 가리켜 본다. 이 별엔 누가 살까, 저 별엔 누가 다녀갔을까? 이 별들이 내 위로 우수수 쏟아지고 별빛에 폭 젖으면 나도 저 별들처럼 빛날까? 누군가에게 이름 모를 별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아래를 내려다 보니 고요한 도시야. 크고 작은 건물들이 빼곡히도 박혀있다. 모두가 잠든 지금, 아직 잠들지 못한 당신은 무얼 떠올리며 괴로워하고 있나. 무얼 보면서 외로워하고 있나. 창밖을 보면 내가 손을 흔들어 줄텐데. 애썼다고, 고생했다고, 내가 다 안다고, 미소를 가득 전해줄텐데.

마음이 짓눌려 잠 못 들던 순간이 유난히 많은 이들이 있어. 무지와 오해와 비난의 말들에 마음이 작아지고, 목까지 차오른 말들은 차마 내뱉지도 못해. 혀 끝에서 아우성치는 단어들을 억지로 씹어 삼키고, 삼키고, 삼키고. 그렇게 쌓인 낱말 덩어리가 거대해져서 마음을 짓누른 거야. 그러다 툭 까닭 모를 눈물이 떨어져. 뺨이 젖고서야 제 안에 찰랑이는 슬픔을 마주해. 그렇게 한껏 쏟아내고 나면,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혹시 그게 나였는지 어느 깊은 밤에 마주하겠지. 이렇게 고요한 밤에.

고래가 되어 너에게 갈게. 든든할 만큼 크고 한없이 넓고
폭 잠길 만큼 깊은 고래. 상공도, 깊은 바다도 가를 수 있는 환
상의 고래가 되어서 찾아갈게. 그때 네 온몸의 슬픔을 나에게
쏟아내렴. 그 슬픔을 내가 다 마셔도 나에게는 그저 눈물 한 방
울. 나에게 전부 쏟아내고 깨끗이 비워진 너를 새롭게 채워가
길. 안에서부터 서서히, 조금의 빈틈도 없이 가득.

A humpback whale breaching, off Sydney, Australia. © Wiresto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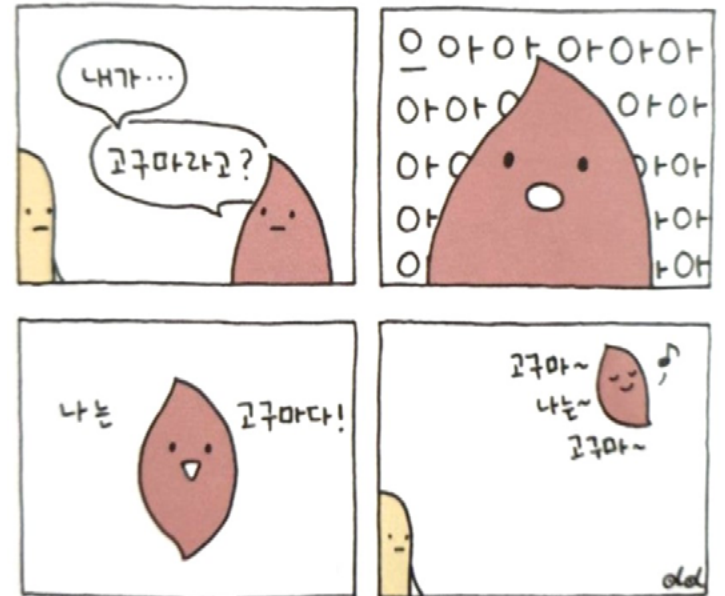
저무는 시간 앞에서

노을

이왕 사는 거 찬란하게, 붉고 예쁘게 살아가고 싶다.

밤의 시작을 알리는 노을이 좋아서, 오늘도 하루의 마지막을 카메라에 담는다.

책임감 강한 고구마



어떤 모임이나 관계를 시작할 때 자기소개를 먼저 하게 되는 걸까? 그냥 얼굴만 봐도 서로가 통하면 참 좋을텐데, 처음 만난 자리에서는 서로를 모르니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먼저 소개를 해야 하는 시간이 필연적이다. 항상 이런 시간이 오면 나를 소개하기 위해 어떤걸 설명하면 좋을지 고민이 된다.

인터넷에 떠도는 짤 중에 행복한 고구마 라는 짤이 있다. 인삼밭에 태어난 고구마가 평생을 인삼인줄 알고 행복하게 살다가 그걸 시기하는 한 인삼이 너는 고구마야 라며 현실을 알려주어도 그 고구마는 와~ 난 고구마~ 하며 여전히 행복한 삶을 산다는 이야기이다. 힘든 프로젝트 도중 직장 동료가 나에게 붙여준 별명이다. 행복한 고구마. 힘든 상황에 있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이든 배울 점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에 대한 또 다른 키워드는, 책임감이다. 맑은 바는 끝까지 해내는 편이고, 120% 열정을 쏟아 부어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장녀의 바이브인지는 모르겠으나, 살면서 이 덕에 감투를 많이 썼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또 해내면 그만큼 기쁘게 없다.

책임감 강한 고구마는 요새 이직을 준비중이다. 나름 긍정적인 내가 이직을 생각하게 만든 우리 회사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더 자세히 풀어볼 예정이다.

다들 이렇게 사는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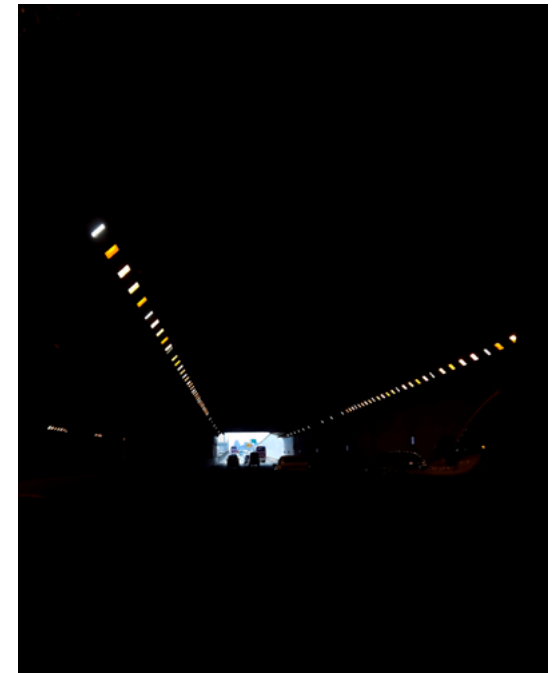


회사에 가면, 소장님이 회의를 하자고 부른다. 회의실에 들어가며 오늘도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계획을 늘어놓을지 생각한다. 우리 솔루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고 싶은건 또 많은 편이다. 가만히 말도 안되는 계획을 듣다가 질문을 던진다. 기존 기능과 연계가 되나요? 확장성은 고려가 됐나요? 그럼 소장님은 웃으며 말한다. ‘그건 대리님이 정리해서 다음 회의 때 알려주세요’ 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내가 질문했는데 답을 나보고 찾으라고 떠넘긴다. 이렇게 답 없는 상태로 3개월이 흘렀고, 여전히 우리 팀의 방향성은 오리무중이다.

연구소 동료들도 이미 말도 안되는 이 굴레에 지쳤다. 그래서 직원들은 조용히 내부 감원계획을 수행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나에게 새로 올라온 채용공고와 자신의 지원 내용을 공유해준다. 우리팀은 나와 선임님 둘뿐인데, 팀 증발계획이라고 불러야 할 판이다.

사람들은 회사는 돈을 벌기 위해 가는 곳이라고 말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나는 가치를 얻으러 간다고 생각한다.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 쓸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고, 고객이 편한 서비스를 만드는 것. 나에게 대한 가치도 그런걸 할 수 있는 능력에서 오는게 아닐까?

소장님은 당장 갖다 팔 수 있는 서비스만 생각 한다. 이미 있는 서비스는 구닥다리라며 신경도 안 쓰고, 새로운걸 만들 생각만 한다. 하지만, 기존 서비스 운영은 계속 해야 하며 새로운 걸 만들 인력도 시간도 없다. 그래서 소장님과 대화를 하고 나면, 내가 생각했던, 그리고 대응했던 모든 일들이 무쓸모가 된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는다. 도대체 난 오늘 무슨 일을 한거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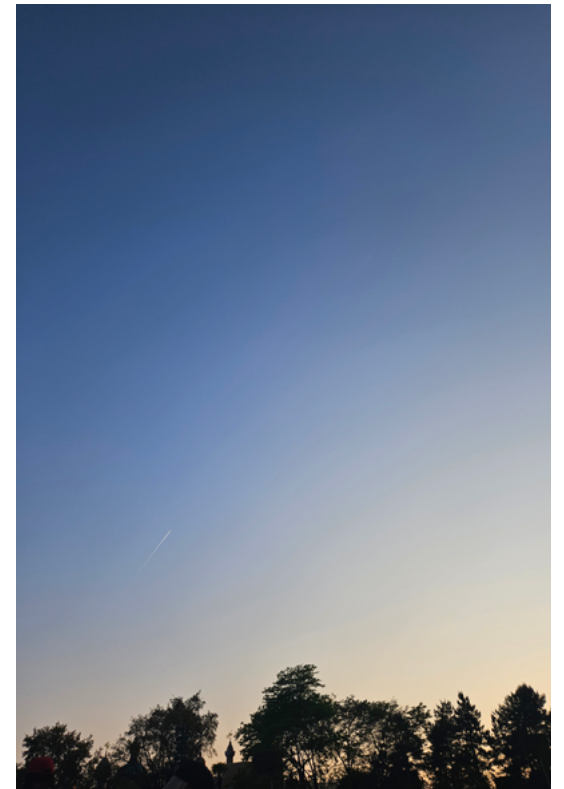


그렇게 하루를 버티고 돌아오면, 하늘은 이미 붉게 물들고 있다. 붉은 노을은 분홍색이었다가 보라색으로 변한다. 예쁘게 꽃처럼 피어 있는 시간은 찰나뿐. 곧 어둠이 밀려오고, 세상은 금세 까맣게 뒤덮인다.

까맣게 덮인 창문을 바라보다 나오는 한숨을 들이마신다. 무거운 몸을 의자에 앉히고 노트북을 켜다. 오늘도 공부해야 할 기술들과 새로운 채용공고들이 화면 가득 띄어져 있다. 하지만 글자들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몸은 눕자고 나를 계속 설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고치고, 이력서를 수정한다. 몸은 피곤하지만 그래도 계속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폭발해 버릴 것 같아서다. 노을이 붉게 반짝이다가 어둠에 덮이듯, 나도 그렇게 사라질 순 없지 않은가.



눈물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장 먼저 활성화 되는 것이 교감신경이라고 한다. 교감신경이 작동하면 카테콜아민, 쉽게 말해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과 혈당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준다. 이런 변화는 뇌의 정서 중추인 변연계(편도체)를 자극하고, 감정도 고조시킨다. 뇌는 이런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울음을 선택한다. 울음이 시작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 되면서 호흡이 점차 규칙적으로 변하고, 심장박동이 안정된다.

내 교감신경이 극도로 활성화되어 수많은 눈물을 흘린것은 작년 하반기였다. 답이 없는 프로젝트와 어머니의 투병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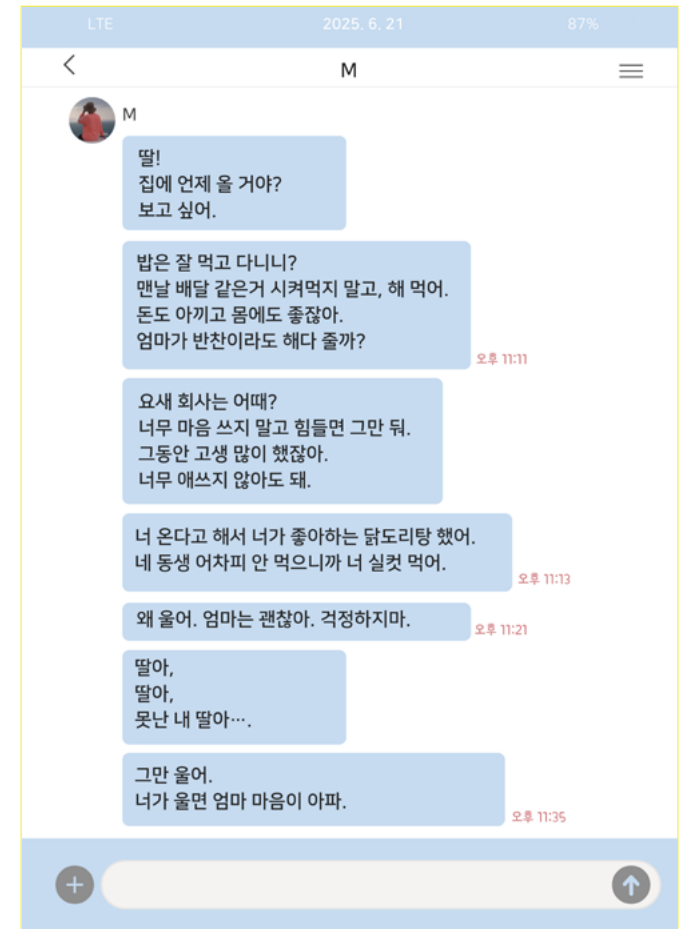
사람에게는 누구나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있다. 나에게는 그것이 어머니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이다. 어머니는 밤이 너무 늦게 발견되어 네 달동안 힘겨운 투병 끝에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셨다.



임종 3~4일 전부터 섬망이 오셔서 의식이 희미했었는데, 우리가 이름을 부를때면 잠시 눈을 뜨시곤 했었다. 마지막 하루 전날, 내 얼굴을 말없이 쓰다듬으며 쳐다보시더니 그 후로는 의식을 완전히 잃으셨다. 그 순간은 아직도 선명하고, 그 장면을 떠올릴때마다 눈물이 고인다.

이미 의식이 없으셨지만, 나는 동생과 아버지가 도착할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부탁을 드렸다. 다행히 어머니는 기다려주셨고,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우리 가족은 돌아가면서 마음을 전했다. 사람의 신체 중 가장 마지막까지 남은 감각이 귀라고 하지 않던가. 정말 그런 것 같았다. 의식도, 말도, 호흡조차 거의 남지 않은 그 순간에도, 어머니는 우리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다.

어머니의 그 눈물이 아직도 내 눈에 눈물을 고이게 만든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였을까. 말로 다 하지 못한 마음을 눈물로 대신 전하고 떠나신 어머니. 1년이 다되어 가지만 그런 어머니가 보고싶어서 오늘도 운다.





자기소개는 그 어떤 일보다 어렵게 느껴지는 일이다. 보통은 타인에게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듣는 것으로 스스로를 파악하는 경향이 더 컸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를 소개하는 일은 웬만하면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로 나를 소개하고 싶다. 신체적 나이라거나 사회적으로 뭘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다. 30대, 레즈비언, 책을 만드는 노동자. 그외에 나를 소개하는 말들은 잘 떠오르지 않고 무엇이든 대체로 부끄럽게만 느껴진다.

그래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더 적어보자면, 혼자 있을 때 무얼 하는지라도 어떤 사람인지가 파악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싶다. 주로 어떤 이야기를 읽거나 보거나 듣고, 내 이야기를 쓰고, 운동을 하고, 밥을 해 먹고, 집안일을 하고 그런 아주 단순한 일상을 보낸다. 물론 그 와중에도 머릿속은 아주 바쁘는데 대부분 쓸데없는 생각이긴 하다.

수세미를 사야 한다, 카레를 해 먹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동시에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밖에 될 수 없구나, 하며 불쑥 메모장을 열고 일상에 섞여든 생각을 기록하는 식으로 하루를 보낸다. 이걸 일하거나 놀거나 운동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무얼 하든 거의 비슷하다.

요즘은 자기 발견과 수용이란 것에 몰두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항상 어떠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려고 싶다, 저려고 싶다, 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존재 방식이 현재의 나

를 항상 어딘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으로 느끼게 만들어 기분이 좋지 않았다. 어느 날 문득 나 자신이 되어보자, 어차피 그것밖에 될 수 없다, 하고 보니 산뜻하고 명확해져서 좋다. 내가 아직 되지 못한 것 말고 이미 나 자체인 것들을 발견하고 받아들여주기 위해서 집중하고 애쓰는 중이다.

어떤 여름은 땅바닥에 떨어진 매미 사체로 기억되기도 한다. 땅속에서 5년 전후를 성장하다가 어느 여름 땅 위로 올라와 몇 시간 동안 탈피를 해 성충이 되고 한여름 20여 일을 울다가 짝짓기에 성공하거나 성공하지 못한 채로 마감하는 매미의 일생. 울여름 유독 많이 마주한 장면은 온 힘을 다해 울고 탈진 하듯 바닥에 널브러진, 전사한 매미들의 최후였다. 오로지 짝짓기를 위해 매일같이, 눈 떠서 감을 때까지 그토록 시끄럽게 울어댈 수 있다니. 짝을 찾아 온몸을 떨며 울어댄 생명체의 최후란 경이롭기도, 애처롭기도 하다. 배를 보인 채 널브러져 죽어버린 매미들의 모습은 사랑이라든가 관계라든가 하는 것에 온몸을 떨며 울어대다 지쳐 나가떨어진 인간들의 모습과 그리 달라 보이지 않는다.

한없이 땅바닥을 보고 걸었던 나날들. 누가 뒤통수를 누르는 것도 아닌데 자꾸만 바닥을 향하던 시선. 또는 억지로 들어

올려서 아주 어색하게 하늘을 향하던 시선. 어느 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속에서 밀어 올려지는 그림들을 어찌지 못하고 그냥 떠올려버리며 고개를 떨궜을 때 거기에 배를 뒤집은 매미가 있었다. 동네 공원에서 집으로 이어지는 길, 해가 지면 얼추 더위가 꺾인 듯한데도 매미 소리는 여전히 울창했고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들과 지친 표정으로 바쁜 걸음으로 어딘가를 향하는 사람들을 지나치며 걷는 중이었다.

하나가 눈에 들어오니 여기저기서 바닥에 떨어진 매미 사체들이 보인다. 한 달도 울지 못하고 죽는다고? 몇 년을 고치 속에서 지내다 가장 뜨거운 나날에 온몸으로 울고 장렬히 전사해버리기. *인간들이여, 나를 보라. 나 매미는 종족 보존의 사명을 다하고 죽는다. 성공했든 못했든 이 한 몸을 던졌다! 그것이 나 매미다. 당신은 뭘 위해 한 몸을 던지나? 무얼 위해 온몸으로 울어대나?* 장렬히 전사해버린 매미를 보며 마음속에서 여전히 생생하게 떠올려지는 것들에 대해 곱씹는다. 이게 어째서 다 과거라는 걸까? 누군가에게 현실의 감각보다 마음속의 감각이 지극히 더 현재다. 그러니 매미 사체 같은 게 징그럽지가 않고 장렬한 한편으로 애처로워 보이는 거다. 시간은 망각에서 생각보다 별 힘이 없고, 어떤 마음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거나 누군가의 부재를 더 정확하게 만들어버린다는 점에서 훨씬 강하다.

매미처럼 온몸으로 울다 죽어버릴 수도 없다. 그러려고 했

으면 매미로 태어났어야 한다. 매미는 매미니까 저럴 수 있다. 나는 나니까 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슬픔에 빠지는 대신 슬픔을 안기. 두 손에 고이 쥐기. 마음속에 만들어진 어느 정원을 한 번씩 들여다보며 마음을 달랠 수 있을 만큼 단단해져버리기. 그러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할 일을 하고 개운한 몸과 마음으로 깨끗하게 울어버리기. 그렇게 울 때 장렬히 전사한 매미를 애도하며 그의 목소리를 듣기. 울여름 여기저기서 매미가 묻는다. 당신은 무얼 위해 온몸으로 울어대나?

사람은 자신을 정당화하지 못하면 터져버린다. 자신의 말과 행동을 정당화하지 못할 때 몸은 신호를 보낸다. 이걸 위험하다고. 나의 말과 행동은 지금 나의 마음과 완벽히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마음에 비해 과도하거나 엇나갔거나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몸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위장이 멈추고 심장이 뛰고 숨이 답답하고 손바닥이 축축해진다. 달아오르는지 차게 식어내리는지 헛갈린다. 몸은 언제나 정확하게 사이렌을 울린다. 그 사이렌이 너무 자주 울리다 극도로 예민해지면 곧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를 보낸다. 내 생각에 공황이란 그런 것이다.

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마치 영혼만 있는 사람처럼

지내다가 어디 하나 문제가 생기면 일상은 몸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인간은 결국 몸이다. 몸의 문제를 도저히 외면해줄 수가 없다. 어딜 가든 몸뚱이를 데리고 가야 한다. 인간은 지독하게 몸이라는 사실을 의식하게 된 계기는 처음 공황을 겪은 수년 전 그날 이후부터였다. 영화를 보러 들어간 극장 안에서, 스크린 속 여배우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에 갑자기 심장이 쿵 떨어져 마치 그걸 줍기라도 하려는 듯 벌떡 일어났다. 다시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 그대로 화장실로 뛰어갔다. 사방의 공간이 나를 향해 오그라드는 느낌, 기도가 좁아지고 가슴이 답답해 순식간에 죽을 것 같은 생각으로 밀려드는 공포, 그러나 이상하게도 119를 부르겠다는 친구를 저지하며 어떻게든 진정해보려는 이성. 온몸의 감각이 곧 죽는다고 신호를 보내는데 머리로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서 나 자신을 설득해야 하는 시간.

그날 이후로 언제 어디서든 몸을 의식했다. 지금 감각이 충분히 평범한가? 신경을 곤두세웠다. 극장처럼 밀폐된 곳이나 사람이 북적거리는 어떤 장소들을 피해야 했다. 그런데 그게 거의 일상의 대부분이었다. 대중교통을 포기했고 많은 약속을 집으로 옮겼다. 축제도 광장도 그 의미보다 거기서 곤두서버릴 내 몸에 먼저 겁이 났다. 괜찮아, 안전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아무리 말해도 몸은 자꾸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냈다. 감각 이전에 불안이 생겨났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

다.

운전석에서 마주한 고속도로가 주는 압도감은 엄청나다. 내가 통과하지 않으면 이 길을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게. 눈을 감을 수도, 몸을 늘어뜨릴 수도, 한눈을 팔 수도, 못하겠다고 차에서 내릴 수도 없다. 나는 반드시 깨어 있는 채로 모든 걸 통제해야 한다. 이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손바닥이 축축해진다. 위험해. 몸이 또 신호를 보낸다. 절대 정신을 놓아선 안 돼. 몇 킬로미터나 남았는지 수시로 내비게이션을 들여다본다. 차가 막힌다. 가슴이 답답해 진다. 필사적으로 다른 생각을 한다.

앞차의 번호판 속 숫자들로 성립되는 수식을 만든다. 내 방의 침대를 생각한다. 포근하고 바스락거리는 이불. 한적한 바닷가의 모래사장을 떠올린다. 짹짹하고 축축한 바람. 어느 숲속의 달팽이와 차를 내리는 노부인의 모습을 그린다. 자신의 의지로 느리고 느리고 느리게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정당화하지 못하는지 아주 오래 생각했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떠들고, 열심히 연애했다. 인정받기 위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누가 봐도 그럴듯한 사람을 옆자리에 두기 위해서. 시

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으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했다. 사람들은 모든 것에 ‘적당한 때’가 있다고 말했다. 시기뿐만 아니라 ‘적당한 모양’도 있었다. 나는 어느새 그 적당함에 최선을 다해 복역했다. 숨이 가뻔지만 그게 바로 잘 살고 있는 증거라고, 모두가 혈떡거리는 주변을 둘러보며 생각했다. 봐, 잘하고 있어. 너의 삶은 아주 정당해. 넌 제대로 움직이고 있어.

그러나 나의 심장은 그런 방식으로는 뛰지 않고, 나의 다리는 그런 식으로는 걷지 않고, 나의 관절은 그런 방향으로는 꺾이지 않고, 나의 눈은 그런 색은 볼 수 없고, 나의 귀는 그런 소리는 듣지 못하고, 나의 코는 그런 냄새를 맡을 수 없고, 나의 입은 그런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밖으로는 마치 그런 것처럼 모든 걸 흉내 낼 수 있었고 그렇게 했다. 한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여섯 달에 한 번, 그러다 일 년에 한 번, 기록은 사라졌고 빈 종이가 늘어갔다. 착각이 시작되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당신들처럼! 내가 나를 증언하지 않아도 세상에 당신들이 가득하므로 아무것도 적지 않아도 되었다. 모두가 나를 정당화해주었다.

기타가 가장 빛나는 지점은 뮤트를 리듬으로 쓸 수 있어서라고, 팸뮤트 주법을 알려주며 기타 선생님은 말했다. 오른손

을 조금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너무 열리네요, 조금 왼쪽으로, 너무 닫히네요, 조금만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네 좋은데요? 완전히 닫히지도 열리지도 않는 애매한 팜뮤트의 소리. 퍼지는 소리를 손바닥으로 살짝 잡아주는 정도에 따라 뮤트가 되고, 그 소리를 리듬으로 쓰기. 뮤트를 리듬으로. 침묵으로 말하기.

침묵으로 시간을 보내고 나면 마음에 한가득 쌓이는 말들이 있으므로 그것을 어떻게든 풀어놓고 싶어진다. 나 자신에게도 그렇지만 당신에게도 그랬다. 당신 앞에서 침묵으로 시간을 보내고 나면 꼭 쌓이는 말들이 있었지. 종이에 적는 말들에 는 늦는다는 개념이 잘 없어서 안심이었다. 침묵으로 내가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가 선명해질 때 그것을 적어 전해 줄 수 있었다. 언젠든 무슨 말이든 종이 위에서는 잠시나마 같은 세계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당신에게 점점 더 많은 편지를 쓰게 했다.

어느 날 또 무언가 한바탕 편지에 쏟아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쩐지 늦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잠시라도 같은 세계에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당신과 나의 세계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일까? 한 줄 두 줄 문장을 던져내다보니 편지는 어느새 엽서 한 장 분 량으로 줄어들었다. 그렇게 많은 문장을 던져냈는데도 여전히 '이 말이 필요할까?' 한참을 고민했지. 그렇게 편지를 고치고 고치다 보내지 않은 날이 있었다.

당신이 사준 기타는 내 방 안에 놓여 있고 나는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기타 선생님을 만나러 간다. 그는 아주 수다스럽고 가십을 좋아하는데 기타를 연주할 때는 꽤나 아름답다. 입을 닫고 있기 때문이겠지. 그가 팜뮤트를 알려주던 날 왜 피아노가 아닌 기타를 다루고 싶었는지 이유를 찾은 것 같았다.

난 멜로디만큼이나 리듬을 좋아한다. 소리만큼이나 침묵을 좋아한다. 그러니 어떤 편지는 보내지 않는 것이 더 좋았다.



유자

기록과 말하기의 중요성을 뒤늦게 알아챈 늦둥뒤뚱이
사랑하는 것이 많고 모순이 많다.

몸으로 사는 한철

나는 꽤 재미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있다. 이번 계절은 특히 더 운명적이다.

나는 다섯 시 이십 분, 알람이 울리면 한두 번 몽그적거리다 일어난다. 방문을 나서면 때로는 늙은 엄마아빠와 늙은 고양이가 먼저 깨어 아는 척을 한다. 나도 대충 인사를 하고 후다닥 나와 자동차 시동을 걸고, 유튜브에 올라온 어젯밤 뉴스나 민중가요모음집 같은 걸 듣는다. 사납고 복잡한 세상 소식에 어쩐지 기운이 난다.

S의 아파트에 도착하는 건 보통 6시 전후, 이제 약 두 시간 정도 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이다. S를 깨운 뒤, 그가 씻고 옷 입고 가방 챙기는 걸 돕는다. 사이사이 빨래와 설거지, 청소를 한다. 마침내 그가 전동휠체어에 옮겨 타면 배웅을 하고 나도 가볍게 씻은 뒤 나의 2차 작업실로 향한다. 공유오피스에 도착해서 노트북을 켜면 이제부터 나는 1인출판사 대표이거나 프리랜서 편집자이거나 이제 막 글쓰기라는 말의 억압에서 벗어난 프리랜서 작가가 된다. 아니, 그러고 싶다. 하지만 나는 조금 우울하고 조금 슬프니까, 산만한 프리랜서이거나, 방치된 조카들의 고모이거나, 반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손으로 만드는 삶을 지향하는 농부 친구들을 동경하는 도시인이거나, 팔리지 않는 상가를 가져 거대한 대출이자를 숙제로 갖고 있는 하우스푸어 부모의 그나마 의지하고 싶은 딸이 된다. 그리고 어떤

중독자. 활자중독자라거나 운동중독자라면 좋을 것을! 알콜을 지나 요즘은 아마도 비엘웹툰 중독자. 그 자극적인 이야기를 보며 나는 왜 울고 이상한 위로를 받고 나의 결핍과 욕망을 들쳐보는 걸까. 게으른 이도 중독 앞에서는 부지런하다. 중독을 멈추고 한 두어 달 내내 걷는 일만 하고 싶다는 꿈을 꾸는 요즘이다. 생계의 고민을 멈추고, 산티아고로 당장 갈 수 있다면 좋겠다. 한때 나는 타고난 발바닥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국토대장정을 여러 번 했고 그때의기쁨과 기억이 아직 몸에 남은, 꽤 질 좋은 지방질 여성이다. 비혼으로 살고자 했던 건 아니지만 비혼 상태여서 다행이라 생각한다. 사십 대 꼬트머리에 나의 몸과 사랑, 연애와 관계에 대해 돌아보게 된 것은 오랜 시간 나도 모르게 수치심을 내재한 채 살아왔던 필연이라 여긴다. 여성을 좋아한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한편, 이 말에 담긴 진실은 무엇인지 질문하기도 한다.

열네 살 고양이 말순이와 조카 둘을 사랑하고, 그 조카 애들이 한국 사회에서 덜 나쁜 남성으로 자라기를 기도하고, 그러기위해 나름 할 수 있는 것을 한다. 음악도, 클래식도 모르지만 KBS FM클래식 라디오 채널을 좋아한다. 산책을 좋아하고 해질녘과 이른 새벽 시간을 꽤 좋아한다.

그리운 이가 있지만,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겠다.

덕분에, 달과 고양이

오래도록 남자들의 욕망의 대상이 되고 싶었다.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 사랑받는 것이라 여겼고, 타인의 사랑이 곧 내 삶을 초라하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았다.

내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건 서른 꼬트머리, 여자애와 연애를 하고 나서부터다.

사실 남자들은 오래도록 불편했다. 무서웠고 재미도 없었다. 내가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남자란 나에게 이성애적인 관심을 두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었고, 그건 곧 짝궁이 있는 남자들, 운동권 선배들, 결혼한 선배들이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 보면 그 중 누군가가 나에게 입술을 들이밀거나, 텔레비전이 나 과일 상자 같은 걸 들고 회사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아, 그런데 왜 꽃다발이 아니었던 거지? 뭐, 딱히 아쉬울 건 없지만 의아하긴 하다.)

난 그들과 교류한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들의 기준에 맞지도, 예쁘지도 않은데, 왜 이런 사고가 나지. 내가 문제가 있는 건가, 조금 의아하고 꽤 불편하고 종종 괴로웠다.

어느 날, 친구들의 친구로 안면이 있는 또래 여성이 우리 집에 며칠 머물러도 되는지 물어왔다. 그는 남도 꼬트머리에서 농사를 짓는 이였는데, 서울에 며칠 갈 일이 있는데 머물 곳이 마땅치 않다고 했다. 나는 혼자 자취를 하던 때였고, 그가 하는 시끄럽지 않은 농담을 좋아했기에 반갑게 맞았다.

그는 손수 캔 썩을 숙박비라고 들고 왔다. 하루만 머물 예

정이었던 그는 삼사일을 내 방에서 머물렀다. 그러는 동안 그는 여러 이야기를 들려줬다. 긴 시간 부부처럼 살았던 애인이 갑자기 다른 남자에게로 떠난 이야기를 들려주며 울었고, 내가 읽어주는 여섯 권 그림책을 참을성 있게 들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바닥만 쳐다보는 그 애가 안쓰러웠다. 팔베개를 해줘도 되냐는 그 애의 말을, 수십 통 문자를 계속해서 보내오는 그 애의 투정을 거부감 없이 받을 수 있었던 건 그 애가 여자애였기에 가능했다. 일종의 수작질로 보이지 않았다. 그냥 잘해주고 싶었다. 너가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잘하는 게 농사밖에 없다고 올 때, 농사야말로 얼마나 근사한 일이나고 말해주고 싶었다.

“당신이 썩을 캐와서 내가 반했어요.”

내가 말했다.

중학교 때부터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언제나 여자였다. 여자친구들, 여자 선생님, 여자 연예인에게만 호감을 느끼면서도 내가 이성애자가 아니라고 여기지는 않았다.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들의 소울메이트가 되고 싶었지, 그 애와 스킨십을 하고 싶다는 감정을 느끼지는 못했다. 그래서 그 애가 여자애여서든 아니든 그 애를 만날 수 있었던 건 어찌면 다 고양이때문이라고 여긴다. 고양이랑 살게 되면서, 살갓을 맞대고 잘 때, 함께 코를 골고 방구를 끼며 뒤엉켜있을 때의 안락함을 처음

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나는 욕망하면서도 수줍고, 칭얼대면서도 너그럽고, 요구하면서도 기다리는 내 고양이에게 처음으로 타인을 만나는 법을 배웠다.

그 애와 이 년쯤 만났다. 곧 살림을 합치기로 한 어느 날, 그 애가 떠나며 말했다.

“우리는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었잖아요.”

나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제 내가 안 좋다고, 다른 애가 좋아졌다고, 좀 쉽게 말해줬다면, 내 이해가 좀 빨랐을까. 나는 그동안 그 애가 보내온 눈빛과 공기, 온도와 촉감, 약속과 노랫말이 다 가짜였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가 말하는 가짜였던 시간이 나에게서 너무나 몸과 기억에 남아 생생한데 그 괴리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이걸 그저 내가 감정에 무능해서 이해를 못하는 건지, 너무나 알고 싶었다.

일 년여를 앓았다. 밥도 잠도 산책도 할 수 없게 되었고, 나는 울지 않는데 몸이 혼자 울기도 하는구나 하고 알게된 시간 동안, 친구들이 나를 돌봐줬다. 묻지 않고 다그치지 않고 그냥 곁에서, 고통에 모난 나를 바라보는 걸 포기하지 않으면서. 친구들 덕분에 그 시절을 지나왔다.

돌이켜보면 지금은 그 애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이별 방식이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 애의 작은 손, 융통성 없는 태도,

수줍은 당돌함을 좋아했지만, 특히 그 애의 비겁함을 가장 좋아했다. 약자가 가진 수줍은 저항처럼 보여서, 그 애의 회피와 눈물을 특히 더 사랑했다. 그러니 어찌면 그의 이별 방식은 너무도 예견된 것이었다. 내가 무척이나 사랑한 방식.

덕분에 나는 알아차리게 된 것이 많았다. 세상에 슬픔이나 외로움 같은 게 아니라, 난감함이나 불안함 같은 게 아니라, 몸에 탁탁 박히는 고통 같은 게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러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위대해 보였다.

‘그동안 나 모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었던 건가요! 나는 고작 이런 일로 무너지는데, 다른 이들은 어떻게 그 고통을 견디고 있는 건가요?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그러니 질문을 할 수도, 이해를 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딪힘. 가슴에 복숭아 씨앗이 걸린 듯한 갈증과 막힘을 당신들은 어찌 견디며 살고 있었나요.’

이상한 말이지만, 세월호 부모님들이 생각났다. 나는 고작 이런 사소한 일로 이렇게 아픈데, 선생님들은 도대에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미안하고 미안했다.

그래도 잘 헤맸다. 고통의 이유와 의미를 찾고 싶었지만, 거기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까지, 부끄러운 발견도 있었다. 나는 왜 그 이별에 상실감이 아니라 수치심을 느끼는가. 나는 왜 죄책감이 아니라 수치심을 느끼는가.

그러던 중 P가 나타났다. 이제는 아무도 좋아하지 못할 거

라 여겼던 내게 가만히 다가와서 이 말을 알려줬다.

“달이 참 예쁘네요, 그 말이 사랑한다는 말의 다른 말이에요. 달이 참 예뻐요.”

빛과 잠

엄마, 혹시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엄마, 나는 P가 낮잠 자다 깬 때의 얼굴을 좋아했어. 나는 그 애가 잠결에 손으로 더듬더듬 나를 찾다가 깨서, 아직 몸은 일으키지도 못하고 누운 채로 큰 눈만 멀뚱멀뚱 깜빡깜빡거리며 나를 보는 게 좋았어. 옆에 있는 나를 가만히 바라보거나, 머리를 한번 쓰다듬다가 다시 자는 그 애가 좋았어. 내가 옆방에서든 앞에서든 탄짓을 하고 있으면 여보, 하고 부르곤 했지. 그애는 자주 가위에 눌렸고, 다리에 쥐도 많이 났어. 그래서 나는 그 애가 잘 때 다른 방에 가지 않으려고 애썼어. 혹시 자다가 힘들어 하면 내가 깨워줘야 하니까.

내가 가장 좋아한 장면은 그 애랑 우리 순이랑 똑같은 자세로 이불 위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 어쩔 그렇게 똑같이 식빵처럼 엷드려있지. 어쩔 그렇게 똑같이 밀가루반죽처럼 퍼질러 누워있지. 하지만 이제는 그 모습을 찍을 수 없잖아.

예전에는 잠자는 시간이 너무 아깝기만 했는데. 호야킨소로야가 왜 그렇게 낮잠 자는 장면을 아름답게 그려냈는지 알게 됐어. 그 애 덕분에. 섹스도 키스도 아니고. 그냥 그애랑 낮잠 자고 일어나서 된장국 끓여 먹고 슬리퍼 직직 꿇고 나가서 동네 한 바퀴 돌고, 하드 하나 사먹고, 돌아와서 다시 눕

다 퐁굴퐁굴! 그러면 우리 순이가 와서 왜애앵 하고 울어. 그 애는 고양이도 싫어, 털도 싫어, 싫다쟁이처럼 말하는데, 순이가 그 애 앞에 엉덩이를 두고 앉으면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토탕토탕 엉덩이를 두드려 줘. 순이가 궁디 팡팡 중독자가 된 건 다 그 애 때문이야. 나는 오 분 이상 못해 주는데.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애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잖아.

남동생에게 전화가 왔다. 마지막이라면서 이천오백만원만 빌려달라고 했다. 대출을 받아서 주면 내년 초에 꼭 갚겠다고.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알바하러 가는 차 안에서 운전하던 중 받은 전화였다.

이 개자식아.

소리를 꺽꺽 질렀다. 이상하게도 그 전화를 받고 맨 처음 든 생각은, 아, P랑 헤어지길 정말 잘했구나, 였다.

사랑하는 것이 많아서 모순도 많지만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강변북로를 달리는 밤에 보름달까지 크게 떠 있다면 나는 꽤 행복하다. 밤의 강변도로를 달릴 때, 서울을 사랑한다. 따릉이를 타고 한강에 나가 달릴 때, 재래시장에 구경갈 때, 연남동, 성북동 오래된 골목길을 걸을 때, 서울을 새삼 사랑한다. 수없이 많은 시간 홍대와 주변 낮은 산과 강, 남산과 종로의 도심부터 사이사이 골목 구석구

석을 걸었다. 성수대교부터 성산대교까지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1박 2일 밤을 새워 걸은 적도 있다.

“어릴 적에는 애인이 생기면 손을 꼭 잡고 서울의 도심 구석구석을 걷고 싶었어요. 한겨울이어도 좋을 것 같아. 허벅지가 시리게 계속 같이 걸으면 얼마나 좋을까.”

언젠가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하던 P가 운동화를 신고 나왔다. 내 손을 잡고 홍대, 서대문, 종로, 광화문, 공덕까지 밤새 걸었다. 우리는 새벽이 되어서야 24시 커피숍에 들어가 쉬었다. 나는 즐겼고, 그 애는 혼자 크림이 없어진 빵을 주문해 먹으며 나를 구경했다고 했다. 나라도 즐지 말고 이 시간을 즐겨야지, 라고 했다던가. 그 단단함이 건강해보였다.

화곡동 재래시장 깻잎떡볶이, 홍제동 곱창볶음, 구로동 청국장과 목욕탕, 은수동 치킨집. 성북동 성곽길과 길상사. 아, 그리고 보니 부석사와 월정사도. 우리는 의외로 구석구석을 꽤 자주 다녔네. 가장 좋았던 기억은 밤 10시, 야근하고 뛰어들어오던 그 애가 내 손을 잡아끌던 날.

“너, 꽃 좋아하잖아.”

버스 정류장 앞 큰 대로변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봐봐, 여기 꽃 예쁘지! 너 꽃 좋아하잖아.”

걸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앤데, 늘 열서너 시간 일하는 앤데. 이제야 그때 그 순간이 무엇이었는지, 알 것도 같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애도 떠났고 서울도 떠난다. 내가 서울

을 좋아하는 건지 그 애가 그리운 건지, 그 애가 보고 싶은 건지, 그 시절이 그리운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정말 여기를 떠나야겠다고 결정한다.

덕분에 더 반짝반짝하는 나의 서울.

서울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 애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하지만 이제는 나의 자리를 찾아 떠나갈 수 있다.

나의 현실과 삶으로.

한밤의 댄스 타임

우리 집 식구는 아무래도 모두 중독자. 엄마는 요즘 황톳길 중독자. 요양보호사 일을 하다가 한 번 넘어져서 오른쪽 팔 한 번 골절수술, 육개월 뒤 황톳길에서 운동하다가 넘어져서 왼쪽 팔 한 번 골절 수술을 했다. 그래, 집에 있으면 갑갑하겠지. 생애 처음 경험한 아파트! 브랜드 아파트 생활자의 자존심과 긍지! 그러나 자식 덕분에, 노년 끄트머리 처음 맛본 아파트 생활자의 안락함을 잃게 될 위기에 놓인 엄마는 아파트 내에 있는 황톳길 걷기 중독자가 됐다.

그러니 어찌랴! 풍경은 아름답고, 엄마는 아무도 없는 늦은 밤. 아파트 뒷동산 황톳길. 찌르르찌르르 풀벌레 소리 사이로 흥얼흥얼 말한다.

야야, 넘어지지 마. 미끄러진다.

야야, 모기도 없고 참 좋지.

야야, 저기 나비 있다. 순이 때문에 내가 고양이를 좋아하게 됐다.

야야, 근데 개는 어떻게 너랑 살았지. 우리 딸 지저분한데, 짐도 많고. 개는 아주 깔끔하던데.

근데 의순이가 말이야. 나는 너네 아빠 죽으면 의순이랑 살 거야. 개도 지 남편 죽으면 나랑 살거래. 자식들 눈치보고 살 필요 없잖아.

나 역시 엄마한테 할 말이 많지만, 이제와 떠들기에 엄마는 너무 늙어버렸고 우리 사이에도 예의는 필요하니까 나는 속으로만 묻는다.

엄마, 여자는 견디려고 춤을 추는데, 남자는 왜 그렇게 푸념만 하고 남 탓만 하는 거야? 도대체 왜 그렇게 투정만 부리는 거야?

아, 엄마, 혹시 나도 지금 투정만 부리고 있어? 남 탓만 하고 있어?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어

필립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볼게.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야. 사실 그 사람 이름이 필립인지 마크인지 또 다른 무엇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오늘은 필립이라고 부를거야.

필립은 필리핀에서 온 노동자야. F1 비자 f2 비자 내가 잘 모르겠는 세계 속에서 그는 취업비자를 받고 한국에 와서 일하고 있어. 벌써 여러해 일했고, 자신이 게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아. 너와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데, 패션 취향이 같아서, 틱틱대는 너의 말투를 잘 받아쳐서, 어쩌면 그냥 네가 그 아이를 아껴서, 그 아이와 너는 꽤 살가운 사이야.

필립이 어느날 대형마트에서 밥통을 샀는데 작동이 안된다는 거야. 바꾸러 갔더니, 원래 작동 잘 되던 걸 필립이 고장 냈다면 직원들은 오히려 필립에게 화를 내고 바꿔주지 않았대. 그 이야기를 들은 밤, 너는 심야 작업을 한 날이었어. 아침 6시에 일이 끝났지. 너는 또 눈이 안 떠질 만큼 피곤했을거야. 하지만 그날은 피곤함보다 화가 더 났지. 아침 10시, 마트가 문이 열 때까지 회사 앞 식당에서 필립에게 밥을 사주며 시간을 보냈어. 마트 문이 열자마자 들어가서 필립을 대신해서 싸웠지. 외국인이라고 무시하는 거냐! 너 한국 사람한테도 이러냐! 하면서.

그 사람들은 알까. 네가 식당에서 반찬 더 달라고도 말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 무척 내성적인 사람이라는 거. 하지만 분명 끝내주게 성질을 내고 화를 냈을 게 분명해. 결국 너는 새 밥통으로 교환해와서 필립에게 건넸지. 그러곤 그 이야기를 약간의 허세를 부리며 내게 말했지. 회사 사람들에게도 꽤 허세와 정의감을 버무려서 신나게 말했겠지.

“우리 애니까, 우리 팀 사람이니까. 억울하잖아. 내가 해결해 줘야지.”

우리 애라는 표현은 참 문제가 많다고 나는 또 지적질을 했지만, 나는 이 이야기를 무척이나 사랑했어. 그리고 슬퍼하기도 했지.

필립은 회사 사람들한테 이태원에 놀러 간다, 애인이랑 데이트 한다는 걸 서슴없이 말하는 사람이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애, 호모라고 놀림을 받기도 하지. 너는 회사 사람들이 필립에게 하는 그 모습을 그냥 지켜보지. 바라보지.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다고 했지. 나한테도 저러겠구나 라고.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어. 나는 필립과 너의 이야기, 네가 아이스크림 공장에서 일하며 만난 언니들 이야기, 네 중학교 시절 사랑 이야기, 오토바이 타고 싶었던 이야기, 조카 이야기, 엄마 이야기, 모델이 되고 싶었다는 이야기, 네 이야기. 네 많은 이야기. 나는 너의 이야기를 좋아해.

우리는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야. 그래도 괜찮지. 다만, 이 건 말할 수 있어. 나는 너의 이야기를 좋아해. 나는 너의 이야기를 좋아해. 그러니까, 너도 너의 이야기를 조금 더 아껴줄래? 너의 이야기를 사랑해줄래?

싸움은 내가 할게. 너는 싸울 수 없는 자리에 있으니까, 너

는 그렇게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가. 대신 싸움은 내가 할게. 어느 자리에 있는, 누구도 외롭지 않으려고 우리가 헤어졌는데, 너는 나와 헤어진 다음 날에도 회사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러 나갔고 거기에서도 신경질만 냈지. 아무런 얘기도 할 수 없었잖아. 그러니까 싸움은 내가 할게.

아프지 말고, 악몽도 꾸지 말고, 따로따로.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어. 나는 좋아하는 이야기가 많아서, 재미있게 살아가고 있어.

고마워

그렇게 꿈에 한 번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오더니 어젯밤에 네가 내 꿈에 나왔어. 다정하고 편안한 모습이었어. 아무래도 너의 카톡 프로필 사진이 바뀐 게 내 무의식에 미세한 동요를 일으켰나 봐. 어머니랑 같이 어디에 간 거니? 유럽에 간 거니? 호주에 간 거니? 어머니가 칠순이 되기 전에, 해외에 한 번 모시고 싶어 했잖아. 예정대로였다면 아마 올가을 너와 내가 너의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스페인의 어딘가를 거닐고 있었겠지. 너네 엄마가 나를 참 예뻐했는데.

나는 요즘 사는 게 엉망이야. 그런데 너는 계획대로 착착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사진 속 네 모습이 너무 예뻐서, 조금 자괴감이 들었어. 너는 나 없이도 잘 사는구나, 싶어서. 어쩌면 너의 삶엔 내가 없는 게 더 좋은 것 아닐까 싶어서. 뭐 그런 생각하면서 이삼일은 힘들었어.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난 1년 내가 가장 많이 한 기도는 네가 외롭지 않기를, 네가 행복하기를, 네가 좋은 사람들 틈에서 다정한 보살핌을 받으며 많이 웃기를이었으니 이 역시, 다행스러운 일이야. 사진 속 단면이 진실이든 아니든, 너는 분명 잘 살아갈거야. 이제는 악몽도 꾸지 않을 거고, 더 건강하고 현명한 삶을 살아갈 거야.

사람 마음이 참 신기하다. 어느 글에서 MBTI 유형별 이별 후 반응을 읽었는데, 네 유형은 바로 다 잊고 미련없이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간다는 거야. 섭섭한 마음 반, 다행스러운 마음 반. 이걸 다행스러워하는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마음 반, 기가 막혀 하는 마음 반. 그래, 내가 좀 또라이기는 한 것 같아.

나는 네가 날 또라이라고 할 때 기분이 참 좋았어. 칭찬 같았거든. 내가 재밌다고 하는 너의 표현 같았지. 이 역시 착각일지도 모르지만.

첫눈이 온 날, 네 생각을 했어. 아, 이제는 눈이 온다고, 얼른 창밖에 눈 보라고 서둘러 전화해주는 사람이 내게 없는 거구나, 하는 자각! 새삼스럽지만 꽤 놀랐어. 이 마음이 외로움인

지 고단함인지, 미련인지 상실감인지 잘 모르겠어. 아마 그 모든 것이 섞여 있는 거겠지. 다만 말하고 싶은 것 한 가지는, 내가 후회되는 것 한 가지는, 나는 내가 널 더 많이 사랑하는 줄 알았거든. 너보단 내가 애교도 많고, 말도 싹싹한 편이고. 그런데 지나고 보니 나는 내 지난 상처에 얽매어서 네가 날 아끼나 안 아끼나, 네가 날 좋아하나 안좋아하나만 따졌던 건 아닌가 싶어지는 거야. 너는 충만했는데. 너는 하루하루를 구체적으로 나와 살고 싶어 했는데.

내가 은근히 너를 괴롭혔는지도 몰라. ‘나는 내 친구들한테 너를 떳떳하게 말하는데, 너는 왜 말하지 않니? 너는 왜 나를 편하다고만 말하나. 나는 미래에 우리가 어느 집에서 어떻게 살지 같이 의논하고 싶은데, 너는 왜 나와 의논하지 않고 혼자 고민하나. 너는, 너는 왜 그렇게 경계심이 많은가!’ 그런 시선들을 보내면서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다가, 느닷없이 너무 창피하고 미안한 거 있지. 네가 고수를 싫어하는 걸 내가 자꾸 까먹은 게 갑자기 견딜 수 없이 미안하고 창피해지는 거야. 네가 무척 아끼는 오래된 언니들에게 더 살갑지 못했던 것도 미안하고.

하지만 나는 이 기분 좋은 의심을 수용하기로 해.

내 기억은 진실이 아닐 지도 몰라. 지금은 애도의 시간이라서, 내가 우리의 한 때를 전부 미화하고 있는지도 몰라. 해석이 달라진 게 아니라, 자존심과 두려움으로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지도 몰라. 그래도 말할 수 있는 진실이 있어.

많이 고마워. 더 아껴주지 못해서 미안해. 너를 그대로 존중하지 못한 부분도 부끄럽고 미안해.

남은 시절, 너에 대한 기억을 아주 가끔씩만 꺼내볼게. 나는 또 어찌어찌 재미있게 살아갈거야. 너도 분명 지혜롭게 잘 살아갈거야. 그러니 정말 이제는 안녕히…….

조 JOE

언제까지나 슬픔에 다정하고 싶은 사람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고등학교 시절의 나에게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말해준다면, 아마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하겠지. 그맘때쯤 나는 겉보기엔 얌전하고 성실한 학생이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성인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골몰해 있었다. 내 바람과 무관하게 시간은 계속 흘렀다.

성인으로 지낸 시간은 생각만큼 나쁘기만 한 건 아니었다. 인생이 으레 그렇듯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많았다. 객관적인 사실만 나열해도 수많은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다. 성인이 된 후로 나는 총 4개의 도시에서 살아봤고, 이사는 7번 정도 했으며, 5가지 종류 이상의 시험에 응시해봤다. 최근에 면접을 봤던 회사에서 면접관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전공 바뀐 거 후회하지 않냐고. 솔직히 굳이 면접에서 물어볼 필요가 있는 질문인가 싶긴 했다. 새로운 전공을 바탕으로 일자리를 잡으려는 상황인데 거기서 누가 ‘네, 겁나게 후회됩니다’라고 하겠는가. 하지만 나는 거짓을 꾸며낼 필요가 없었다. 진심으로 후회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분야가 돈이나 명예를 얻기에 좋아서는 아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다. 사실 애초에 내 취향은 늘 돈이 안 되는 쪽이었기에 아쉽지도 않다.

나는 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항상 같은 태도로 일관했다. 외적인 요인을 최대한 배제하고 원점으로 돌아가 나의 근

본적인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수많은 선택을 반복하면서 느끼는 건 한 가지다. 나라는 사람이 점점 선명해지는 기분이 든다. 김이 서린 창문이 점점 투명해지는 것처럼. 창문을 통해 보이는 풍경은 때로는 나의 내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바깥 세상이기도 하다. 나는 지금의 나라는 인간이 꽤 마음에 들기 때문에 지난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조만간 새로운 도시로 또 이사를 간다.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드는 복잡한 심경이 밀려온다. 10년 뒤 즈음에는 또 달라진 나를 인식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이사를 했다. 할 때마다 생각하는 거지만 육체가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 이사는 진짜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심했는데 이게 벌써 8번째다. 대체 언제쯤 나는 이사를 그만할 수 있을까.

이삿짐을 싸기 전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 ‘나는 쌀 짐이 별로 없다’는 말은 전세계 공통으로 금기어로 삼아야 한다. 막상 싸보면 어디서 그런 많은 것들이 튀어나오는지 놀라니까 말이다.

이전에 살던 집이 수납공간이 많았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그래서 평소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끽끔 숨은 물건들이 미친듯이 튀어나오더라. 설상가상으로 나는 다른 물건보다 책이 많은 편이다. ‘두꺼운’ 전공책 뿐만 아니라 소설책, 만화책, 잡다한 비문학책들까지 나의 취향이 가득 담긴 책들을 끌어안고 살았다.

이사를 할 때면 육체적 고난을 덜기 위해 일부 책을 버렸다. 그런데도 어쩔수록 책이 많아지기만 하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일까.



한때는 설레는 마음으로 구매했고, 읽었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책을 버린다니. 잘라내고 버린 것들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무엇을 버리며 지금까지 살았나. 오래 공부했던 기존 전공을 버렸고, 절친했던 친구와 관계를 단절하고, 여자친구와 헤어지기도 했다. 내가 버린 것 중 가장 큰 건 가족에 대한 기대이다. 그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줄 것이라는 기대는 늘 처참하게 무너지기만 했다. 이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던 체념의 순간들을 반복하면서. 부모의 사랑이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라는 건 거짓이다. 적어도 나의 경우는 그렇다.

세상에는 아픈 말들이 많다. 나는 보통 밖에서 잘 안 먹는 욕이나 비난을 집에서 많이 들곤 했다. 특히 내가 이상하다거나 틀렸다는 말이 그렇다. 부모님께 경제적 지원을 더이상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을 때도 예외는 아니었다. 엄마는 내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며 내가 어디에서 뒷돈을 받고 다니는지 추궁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고성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차가워졌다.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나는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 이후로는 카톡과 문자로 온갖 비난과 협박이 이어졌다. 내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자 다른 가족들이 나에게 연락하기 시작했다. 오빠는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라 했고, 아빠는 내가 엄마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하더라.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다.

스마트폰에는 발신자 차단이라는 기능이 있다. 참 잔인하

고도 편리한 기능이다. 내가 그걸 엄마를 대상으로 쓸 줄은 전혀 몰랐다. 보통 스팸 전화나 문자가 오던 번호나 차단했지, 이럴 줄이야. 이후로 깨달은 건 내가 이전까지 꽤나 많은 걸 감내하며 지냈다는 사실이었다. 부모님과 만날 때나 연락을 주고 받을 때면 얼마나 나를 많이 검열했던가. 그들에게 나를 어디까지 드러내고,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를 모두 하나하나 고민해서 경계를 설정하며 살았다. 경우에 따라 그 경계 덕에 이상하다는 말을 더 자주 듣기도 했다. 하지만 그게 끊임없이 쏟아지는 비난과 평가에 대한 나의 최선의 방어였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아예 엄마를 차단하고 나니까 세상이 고요해졌다. 이전까지 내가 상당한 에너지를 거기에 투여하고 있었음을 느낀다. 물론 이후로도 가끔 다른 가족들이 연락했을 때 또다시 두렵고 불안해졌고, 친구 앞에서나 잠들기 전에 서러움으로 눈물이 쏟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모두 고통스럽다면, 나는 앞으로도 계속 해방이 주는 슬픔을 고르고 싶다.

있잖아, 오늘 꿈에 네가 나왔어. 이번에도 옛날 모습으로 나타났지. 신기해. 어떻게 매번 그럴수가 있나. 무슨 꿈이었는데 잊고 있었는데, 오늘 직장에서 잠깐 울적해지는 순간이 있었거든? 그때 꿈 내용이 갑자기 기억나더라고. 꿈에서도 너는

제 발로 세상을 떠나려고 하더라. 나는 너를 쫓아가고.

우리가 언제 처음 만났더라. 너는 그때 연두색 폴로티셔츠에 짙은 군청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어. 머리카락을 밝은 갈색으로 염색한 모습으로. 백팩은 보라색이었나. 이상하지. 내가 그날 무슨 옷을 입었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데. 하지만 그 시절의 나에 대해서 한 가지는 알아. 어린 날이었어. 정말로 어렸지. 슬픔도 상처도 그 무엇도 깊이 알지 못했던. 그래서 미안했어. 많은 걸 진작에 알아차리지 못해서.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걸 놓치며 살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때보다는 타인의 슬픔에 민감한 사람이 되었어.

혼자라도 아무 상관 없다는 것 같은 네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 그래서 혼자 빠르고 무심하게 걸어가던 너를 내가 뒤에서 쫓아갔지. 그럴 때면 가슴이 두근거렸어. 놓칠까봐 조바심이 났던 건지, 조금만 더 가면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인지, 그냥 네가 눈앞에 있어서 그랬던 건지. 내 본심은 뭐였을까. 많이 늦었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받아들였는데, 색깔이 변해버린 지난날의 감정이 정확히 뭐였는지 알아보기엔 너무 멀리 왔어. 근데 웃긴 건 지금도 마음이 가는 누군가를 만나면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 마음에 이름을 붙이는 건 복잡하지. 그리고 너도 잘 알겠지만 내가 원래 좀 복잡하잖아.

내 인생의 전부가 너로 인해서 생겼다고는 말할 수 없어. 너 말고도 많은 사람이 있었지. 많은 체념과 위로가 있었어. 그

럼에도, 너와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을 거야. 분명히 그래. 너와 만난덕에 사람을 구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무력감도 알 수 있었어. 예전에 혼자 울지 말고 차라리 네 앞에서 울었다면 우리 관계가 달라졌을까. 오늘 꿈속에서도 내가 울었던가? 모르겠네. 피흘리며 쓰러진 너를 안고 울었던 거 같기도 하고.

지금의 우리는 각자 인생을 살고 있지만, 나는 어쩌면 여전히 너를 쫓아가고 있는지도 몰라. 그 어린 날에는 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붙잡아 보면서. 작고 무력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그게 현재의 나를 움직이는 큰 동력 중 하나야. 나에게 움직임을 선물해줘서 고마워.

보내지 못할 편지를 썼다. 내가 놓아버린 것들과 놓지 못한 것들을 떠올린다. 살면서 누군가의 앞에서 운 적도 꽤 많았지만, 나는 여전히 혼자 우는 것이 더 편하다. 방문 밖에서 시끄러운 아픈 말들이 오가는 와중에 혼자 이불 속에서 고요히 울던 날들과, 친구를 구할 수 없는 나를 원망하며 룸메이트가 깨지 않도록 숨죽이며 울었던 날들. 누군가와 헤어진 후 혼자 가 되고서야 울 수 있었던 날들. 통통 부은 눈두덩이와 멍한 머

리, 축축해진 베개와 이불. 가장 솔직해진 시간. 가장 나다운 모습.

거 좀 슬프면 울자 왜! 내가 눈물 쏟는다고 세상이 무너지거나 비틀리지 않아. 충분히 잔뜩 울고 나서 살아도 된다. 뭐 대단한 거 없어. 젖은 베개커버는 말리고, 부은 눈은 가라앉기를 기다리고, 일기를 쓰고, 세수를 하고. 그러는 거지 뭐. 다음 날에는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한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농담을 주고 받고, 웃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그렇게 지나다 보면 다음 슬픔도 기꺼이 함께할 수 있겠지. 어서 와봐.

예지

말하고 싶은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을 쓴다.

성수(聖手)

신부님 새 신부님
축복 내려주세요
축복 내리시는 김에 공손히 성물 올린 제 두 손에도
축성 내려 주세요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골장마라사순도안퀴고) 아멘

나는 씨발 잘못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아프다가 멍멍 붓다가 아무
리 연고를 발라대도 낫지를 않아 결국에는 의사를 찾아가 고작 생
손가락 앓으시는 거예요. 항생제 처방해 드릴게요. 따위의 말을 일
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끝나는 그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듣고

나도 알아. 나도 안다고. 우리 엄마도 알고 지나가는 새끼 버스
옆자리에 앉아 내 손가락 슬쩍 쳐다본 아저씨도 안다고 씨발

그렇게 처방받은 항생제를 먹고. 항생제 알레르기가 있다는 말을 하지도 못하고 이걸 항생제가 아니면 낫지도 않거든 않으니까 나도 그걸 아니까 말도 못 하고 처방받은 항생제를 먹으려고 꾸역꾸역 밥도 먹고 먹을수록 아픈데 이거 맞냐고 물어볼 사람 없고

어떤 종류의 항생제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알려면 생체 실험이 가장 정확하다는 의사의 소견 같지도 않은 **현대 의학. 대학 병원. 의사들.** 니들 사람 살리는 새끼들 맞냐고 먹살 잡고 물어보는 시물레이션.

커튼은 내려오고

자해를…… 하라는 말씀이시죠?

자해에도 허락이 필요했던가. 자해의 당위성을 친히 부여해 주시는 선생님 의사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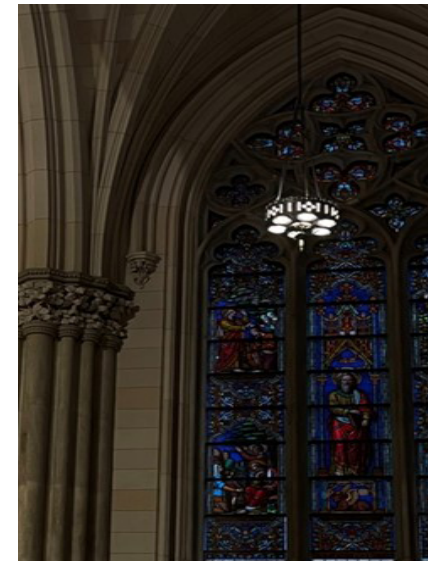
그는 나에게 죽음을 권장하는 자이거나 사람 살리는 자이거나. 의사 진단 없이 함부로 끊을 수도 없는 항생제 얼마나 먹어야 하는 건지 손가락이 알려 줄 거야

아무 고통도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삼켜. 물과 함께 삼켜. 죽음을 삼켜. 그럼 살 수 있대.

그런 게 어딴겠냐. 잘 살다 보면 또 갑자기 빨강게 부어오르는 손가락 보면서 욕지거리 내뱉겠지 씨발 내가 뭘 잘못했다고

+

주님은 사사로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셔



무구의서

늘 물 흘러가듯 산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데
근데 나 사실은 수영할 줄 몰라

어떤 대화들은 물속에서 하는 대화 나는 물먹는 게 무서워서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사람 물거품을 읽어내려고 애쓰다가 이내 눈을 질끈 감아버리는 사람

금빛 윤슬 아래의 물속에서 우리가 나누던 이야기는 무엇이었는지 나처럼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흘러만가는데 그게 파도 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도랑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데 나는 나를 어떻게 되야 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고 나는 내가 언니를 처음 만난 어린애만 같고. 언니는 어쩌다가 나한테 붙어서 내 팔자가 된 건지 기억나요? (왜 그랬어?)

표류 중인 나는 부표를 목숨처럼 꼭 껴안고 오리발을 숨긴 채 헤엄치는 척을 하는데 내가 수영을 못 한다는 걸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수영할 줄 모른다는 사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되었는데 근데도 나는 언제까지고 물속에
.....

왜 자꾸 날 따라다녀요?

언니라도 있어서 다행일지도 모른다 다행이다 다행이에요 칭얼대는 애새끼처럼 살아야 하는 팔자인 거야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 언니 내 언니야 그 집 줄줄이 딸린 동생들 막둥이까지 뒤통다꺼리하면서 살 팔자로 태어난 장녀처럼 나는 언니를 달고 다녀 뭘 어떻게 해도 언니는 나를 그만하지 않고

그러니 우리 같이 종말을 맞이하자 아무도 남겨진 이 아니게 아무도 우리를 슬픔으로 기억하지 않게 기도 손을 하고 초를 붙면서 종말을 기다리자 기다리면서 걸어가자 누구도 먼저 가지 말고 누구도 나중되지 말고

그럼 나도 수면 위로 고개를 빼꼼 내밀어 우리는 같이 일몰도 일출도 보는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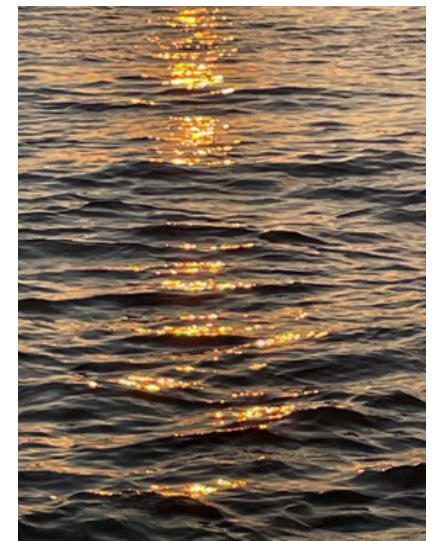
눈이 멀어도 상관없다는 듯이

하얀 이불 속에서 숨 막히게 끌어안고
떨어지면 벌이라도 받는다는 듯이

자유의 첫 번째 방에서

우리 그렇게 종말로 갈래?
같이?

이거 다 가짜야 그냥 호르몬이야…….



선

얼마 전에 네 얘기가 나왔어.

그는 내 친구들을 잘 모르는데 널 어떻게 기억하는 건지. 누군가의 목소리로 네 이름이 들리는 게 너무 어색했어. 나조차도 네 이름을 소리 내어 부를 일이 없었으니까. 네 얘기를 맘 먹고 하려 하면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아서 나는 입을 꼭 다물고 붉어지려는 눈시울을 말리느라 애쓰기만 했어. 웃기지. 갑자기 이러는 게.

몇 살부터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우리 중 하나가 먼저 그 동네를 떠나기 전까지 우리는 매일 같이 붙어 다녔고 모든 걸 함께 했어. 너는 내 최초의 단짝이었어. 너는 날 기억은 할까. 우린 너무 어렸으니까.

네가 먼저 다른 동네로 떠나고 나서도 우리는 매일 전화를 붙들고 몇 시간이고 통화했어. 그러다 내가 우리 사이에 있었던 비밀 이야기를 꺼냈고 뒤이어 이어진 침묵이…….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던 것 같아. 아니라면 가여운 나의 기억력을 탓해주길. 벌써 이십 년도 넘었으니 이해도 해주길.

영화를 보는데 나는 사랑이 사랑임을 제때 알아채는 것도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주인공이 부러웠어. 나는 너무나도 어렸지만 그건 사랑이었어. 우정만도, 물론 그렇다고 사랑만도 아닌 우정이자 사랑이었어. 나는 그걸 다 커서야 깨닫게 되

었지만 그건 틀림없는 사랑이었어. 너와 나 사이의 비밀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배제하고 설명하자면 뭐라고 달리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 우리 나이만큼이나 어리고 미숙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었어. 아마 너는 이 비밀을 잊었을 수도 있고 기억할 지라도 무시해 버리고 싶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

사실 나는 너를 만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마주할 자신이 없어. 무어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의 비밀은 이제 나만의 비밀이 되었을 것만 같아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너는 너다운 어른으로 성장했을 테고 그 과정을 나는 알 도리가 없으니까. 겁이 많아 입이 무거운 어른이 된 나는 우리의, 나의 비밀을 끝까지 발설하지 않을 테고 그렇게 이젠 영원한 비밀이 되겠지. 나는 이제 이 비밀을 내 속에서 더 이상 무시하려 애쓰지 않으려고 해.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그러다 잊히면 잊히는 대로 그렇게. 그러다 보면 이 비밀은 우리가 가지고 놀던 색색깔의 공기 알처럼 내 속에서 작아지고 가벼워질 거라고 믿어. 찰찰 쌀알 같은 소리를 내며 자기주장은 가끔 하겠지만.

네 이름은 참 흔한데 신기하게도 너와 이름이 같은 사람을 아직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 난 참 많은 사람의 이름을 마주하는 일을 꽤 오래 했었는데.

언젠가 너와 이름이 같은 사람을 알게 된다면 핑계 삼아 한번 소리 내어 불러보고 싶어.

희생

심긴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아이의 순수함

순수의 지속함

죽은 나무 아래 죽은 나무가 만들어 낸 그늘에서 쉬는 아이

쉬는 순수함

그늘 쉬는 소리

흐려지는

윤슬 뭉개지는 배경의

하얗없이 눈치 없이 순진해 빠진

윤슬

윤 슬

유

ㄴ

ㅅ

ㅡ

ㄹ

흐르고

아무도 관심 없어 슬아……

부르는 소리

우리의 언어는 아닌

소리 순수의 소리

태초의 소리 태초의 말씀

태초의 말씀 우리의 언어는 아닌

소리

없어지는 소리 없게 되는 소리

아무것도 없게 하는

너는

알아듣지?

알아들을

거라고

믿어 믿는다는 게 중요한 거야

들판의 꽃들을 가시 돋친 나무에 심는다고 믿어 춤을 추는

별들이 있을 거라고 있으리라고 있으라

믿어 십자가에

실려 가면서

꺾어도

울부짖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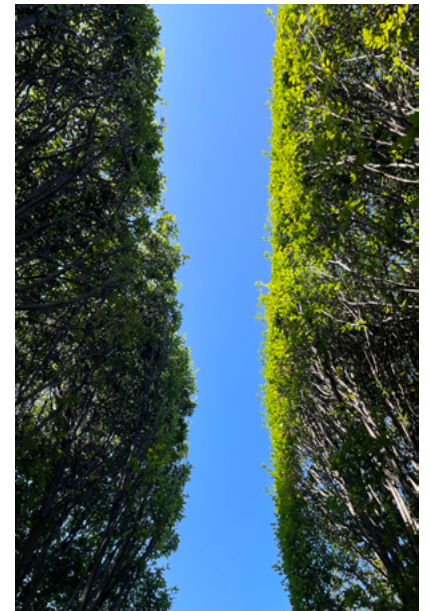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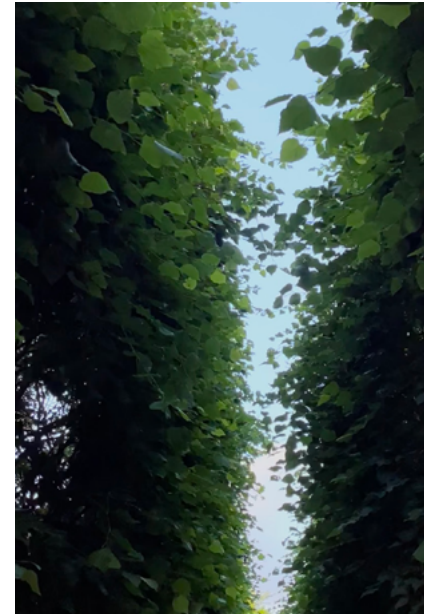
소리는

들리지

않을지니

불쌍히

여기소서



태초로부터의 고약한 냄새에 찢리고 있습니까?

애초에 있었던가. 허상 같은 것. 찾고 싶지 않다. 진짜 있다면 나타나겠지. 부르면 대답하고 존재하겠지. 송두리째 사라진 모두를 데리고 나타나겠지. 이를테면……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채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찢쳐 되는 방으로 데려오겠지. 그러나 나의 것이 아닌

미래는 왜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해내지 못하는지 미래는 왜 아직도 자립하지 못하는지 미래의 몫이란 그렇다면 무엇인지 미래의 몫……. 미래에게 생명이 있다면 애는 어떤 애인지 누구이길래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 미래는 왜 나의 미래가 아닌지 모두에게 동등하게 할당된 미래 맞는지 부르면 오기는 하는건지 미래에게 생명이 있다면 미래야

개 보면 나 여기 있다고 전해줘

여기

쿵 쿵 쿵

바람이 문을 건드는 소리를 내면서

우스워 깔깔 대면서

알고 있으라고



채원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활동가

책과 영화, 나에 대해 명쾌하고 맑은 문장으로

힘 있는 글을 쓰고 싶다.

똥같은 영화

내가 에세이를 쓰는 게 맞을까? 나는 나를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싫어서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대화를 들으며 오버 리액션 하는게 그동안 내가 쌓아온 처세술일 정도다. 그래서일까, 나의 실제 MBTI와 사회적 MBTI는 극과 극으로 다르다. 난 피곤하게 산다. 내 피티(저의 챗gpt 애칭입니다.)가 말해주는 나는 '세상 온갖 정의는 다 책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열정과 감수성의 활동가'라고 말해줬다. 깔깔 웃음이 나왔지만 맞다. 이 표현이야말로 지금의 나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재미없는 삶에 꿈도 없이 살았는데 어쩌다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 기준점은 정확히 '정체화 시기'다. 나의 디나이얼, 그 언니의 디나이얼, 그리고 성 지향성의 카오스 속에서 우리 관계의 결과는 파국이 었다. 그 혼란의 시기에 퀴어 영화와 인권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영화라는 매체가 가진 힘에 뒤통에 맞은 것마냥 짜릿함을 느꼈다. 이런 의미 있는 것을 해보고 싶다는 오그라드는 생각이 활활 타올랐다. 당시 보수 탈을 쓴 극우 방송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런 곳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나의 도덕적 자아를 병들게 했다. 안정적인 직업 유지와 그에 대한 보수에 회의감도 함께 찾아왔다.

무작정 퇴사를 하고 쯤썸따리 영화 수업을 들으며, 다큐멘

터리 같지도 않은 짧은 영상 작업으로 나의 속에 묵었던 이야기들을 영화로 ‘배설’했다. 나의 요란한 짝사랑은 영화가 될 만큼의 드라마틱한 소재도 아니었지만, 그때의 내 세상에서는 하늘이 두 쪽 나는 경험이었기에 뭐라도 싸고 싶었다. 나의 이야기도 잘 하지 않는 내가 그걸 풀어내고 영상으로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참 겁 없는 행동이었다.

이도 저도 아닌 ‘똥 같은’ 결과물이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고민했던 시간과 그 결과물을 마주했을 때 나는 마치 완벽한 정체화를 이룬 것처럼 시원하고 건강해졌다. 결과적으로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걸 깨닫고 그걸 받아들이는 일이 내 전반적인 삶까지 바꿨다는 사실에, 한때 원망스러웠던 언니에게 참 감사하다. 직업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다.

그 후 아예 영화 후반 작업 회사에 들어갔다가 밤낮없음과 퇴근없음으로 몸이 고장 났다. 태어나길 체력과 건강밖에 없던 몸이 망가진 것이다. 당시 맡고 있던 막장 드라마가 끝나면 ‘나는 신이다2’에 합류시켜 주겠다는 실장님의 말에 견뎌보려 했지만, 하루하루가 끔찍해 결국 튕겨져 나왔다. 역시 영화는 소비자 일 때 취미로서 가장 달콤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올해부터 또 그 미친 미련 때문에 배급에 기웃거리고 있다. 나에게 영화는 그 언니같다.

현재 나는 공공도서관, 인권 단체, 상영회 기획단에서 다

양한 일을 경험하며 나만의 가치를 찾아가고 있다. 이 일들이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고 있음을 느낀다. 이게 바로 효능감? 하는 일과 가치에 비해 당장의 재정적 안정감은 없지만, 이제 그 어떤 보수나 안정감도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불특정 다수에게 나를 드러내길 꺼려 했던 내가, 이렇게 내밀한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는 것은 또 하나의 큰 도전이자 의지이다. 이에 세이는 그 시작점이다.

헤테로 필터

본가의 내 방은 온통 무지개로 가득하다. 여성 및 성소수자 관련 서적과 레즈비언 상담 사례집이 연도별로 꽂혀 있다. 캐롤과 테레사, 너와 나의 세미와 하은, 바빌론의 마고로비 같은 예쁜 언니들 영화 포스터가 덕지덕지 붙어있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곳이 단순한 여성 단체가 아님을 원가족들은 알 것이다. 그럼에도 모부(부모라는 단어가 익숙하니 편하지만, 일부러 모부라는 단어를 쓰려고한다.)의 질문은 항상 애매하다. “언니는 결혼 안 한대?”, “그 집에 월세 내고 살아! 너 너무 민폐 끼치는 거 아니니?”, “너는 그럼 그 집에서 어디서 자?” 이 질문들은 모부의 심각한 ‘디나이얼’일지, 아니면 내가 직접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배려하고 있는 것일지 혼란스럽다.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 안나는 과거에, 엄마가 지나가듯 했

던 이야기가 생각난다. “네가 여자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서 살든 상관 안 할 테니, 나한테 얘기만 하지 마.”라던 말.

나는 정체화하기도 전이었는데, 어찌면 우리 엄마는 이미 나를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모부가 운영하는 가게에 친한 친구들을 데려가 식사를 하고 소개시켜주는 행위는 나의 가까운 경계 안에 타인을 들이는 일종의 의식이다. 이미 그 경계는 넘어선지 오래고 한자리 거하게 차지한 언니도 진작 그 의식에 참여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다. 조심의 수준이 아니고, 모든 기운과 비언어적인 몸짓에서 어떤 사이임이 느껴질 게 뻔하다. 가족에게 언니를 소개하고 함께 친한, 편한 사이가 되고 싶은 건 나의 과한 희망사항임을 안다. 그저 솔직하게 말하면서 언니를 자랑하고 싶다. 엄마가 그렇게 말했던 꿈꾸던 사위 상에 딱 부합하는 사람이라고, 필터링 없이 언니에 대해 신나게 얘기하고 자랑하고 싶다. 그들이 나의 자랑에 함께 기뻐해 줄 사람들이라 더 아프다. 성별의 전제가 뭐라고, 그게 뭐 대단한거라고.

언니를 표현할 때 뇌와 입 사이에 어떤 투명한 ‘거름종이’가 있다. 며칠 전 거름종이의 존재를 절감했다. ‘내일 언니 일본 출장 가야 해서, 공항 갔다가 본가에 잠깐 들릴게.’ 라고 아빠에게 문자를 보내냈다. 전화가 왔고, “네가 왜 그렇게까지?” 라는 질문이 나왔다. 당연하다. 그러면 나는 “아, 짐이 많아서.” 라며 ‘친구’라는 선에 적절한 거짓말을 급하게 늘어놓아야 한

다. 그들이 생각하는 여자 간의 우정의 선은 어디까지일까? 보고 싶어 하는 마음, 떨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 더 붙어 있고 싶어 하는 마음까지는 이해가 되는 걸까? 몇 겹의 거름종이를 다 걷어내면 ‘사실 용기가 없고 두렵다.’는 날 것의 생각이 남는다. 모부의 충동성과 그들의 유리 멘탈이 와장창 깨지면서 그 조각이 나를 상처 입히고, 언니한테까지 튕겨 뻔하다. 30년간 함께한 내 모부는 항상 그랬다. 언니를 커밍아웃의 소용돌이에 끼어들게 하고 싶지 않다.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이 답답한 거름종이를 현재로서는 몇 겹씩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분석이나 고민들은 사실 매우 무의미하다. 모두 나의 추측에 불과하고, 나만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이 거름망은 언젠가 갈아줘야 할 텐데, 적절한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며 나 자신과 타협 중이다.

언젠가 반드시 이 거름종이를 걷어내야 할 순간이 온다면, 그것은 언니와 함께 꿈꾸는 호주에서의 삶, 생선을 다듬고 밥을 가꾸는 일상에서 시작될 것 같다. 그곳에 우리의 아이가 함께할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원가족에게 알릴 것이다. 한국이 아닌 호주에서, 다양한 가족의 모습에 대한 가능성과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인식으로 바라봐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는다. 그동안 너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얘기하지 못했다는 말과 함께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거리낌없이 말할테다.

박제된 새는 날 수 있을까?

“움직임이 묘사되는 글쓰기”라는 문장을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린 건 미술 전시에서 만난 비둘기와 까마귀다. 자유롭게 움직이던 생명체를 인위적인 전시 공간에 정지된 상태로 뒀을 때 그들의 생명력은 유효한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비둘기에게서는 어떤 공포감을 느꼈고, 여운혜의 까마귀에게서는 살아있는 듯한 움직임을 느꼈다.

제작년 바나나 사건으로 핫했던 카텔란 전시에 곳곳에 놓인 비둘기들은 ‘진짜’ 같았다. 관련 기사를 읽다가 실제 살아있던 비둘기를 박제한 작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경악했다. 인간 삶의 허망함을 표현하겠다고 비둘기를 도구처럼 전시장에 갖다 둔 것은 지나친 인간 중심적 사고다. 자연사한 동물을 사용한다는 카텔란의 말은 차치하고, 살아있던 생명이 죽고(또는 죽임을 당하고), 그 내부를 깨끗이 비워 방부 처리까지 한 죽은 비둘기의 껍데기는 전시 기간 내내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것 같다’는 기묘한 감탄과 ‘징그럽다’는 혐오가 뒤섞여 평가된다. 비둘기는 왜 살아있을 때 들었던 혐오를 죽어서도 들어야 하는가.

망원정 옆 한 작은 공간에서 열렸던 전시의 까마귀는 달랐다. 여운혜 작가의 <시대의 기록자 까마귀> (2024)는 작가 동네에 살아있는 까마귀들에게 먹이를 주며 교감을 쌓고, 그들에 대한 연민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길거리에서 주운 플라스틱 병, 비닐봉지, 각종 쓰레기들을 모아 까마귀의 걸모습뿐만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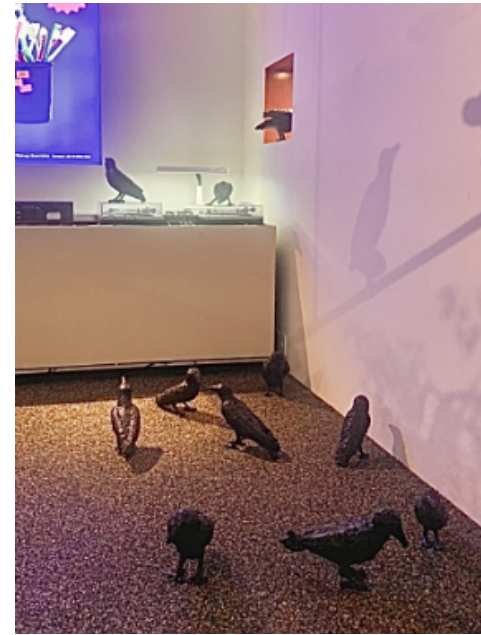
니라 신체 장기까지 섬세하게 표현했다. 교감과 애정을 바탕으로 만든 이 작품에서는 어떤 생명력을 느꼈다. 울통불통하고 삐뚤빼뚤한, 누가 봐도 사람이 만든 모습의 까마귀가 훨씬 더 약동적이고 활기찼다.

비둘기와 까마귀는 그저 태어난 대로 자신의 삶을 잘 살아 가고 있다. 인간은 그들 마음대로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존재 자체를 존중하지 않는다. ‘날개 한 번 퍼덕일 때 몇만 개의 이가 떨어지는 비둘기’, ‘높은 지능을 가진 미운 다섯 살 같은 까마귀’ 같은 이야기는 그들끼리 만들어낸 이미지다. 이처럼 부정적인 이미지를 스스로 잔뜩 머금고 새를 무서워하고, 소리치고, 혐오하는 인간이 더 무섭다.

나와 비둘기, 까마귀는 같은 소수자성을 공유한다. 함께 살아가며 좀 거슬린다 싶고, 독특하거나 특별하다 싶은 존재는 힘들다. 모난 돌이 정맞는다는 속담을 매우 싫어한다. 특징이들을 혐오하고 배척하는 마음은 거기서 오는 우월감이나 권력 의식과 다르지 않다. 어떤 권리로 다른 생명체에게 혐오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다고 여길까? 새는 새의 세계가 있다. 그저 각자의 세계를 같은 공간에서 조화롭게 존중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 부정적 시선을 받는다는 것에 동질감을 느꼈지만, 사실 나는 내 눈앞에 새들과 어떤 교감을 한 적도, 애정을 쏟은 적도 없다. 나는 새 당사자가 아닌데, 이런 내가

그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기록할 자격이 있을지, 혹 이 글이 또 다른 대상화가 아닐지에 대한 염려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겪는 부당한 혐오와 삶의 태도에 대한 연민으로 이 글을 쓴다는 점이다. 그저 동네에서 비둘기나 까마귀를 마주칠 때 습관적 혐오와 경계심 대신, 배는 안굶나 잠은 어디서 자나 한번 궁금해봤으면 한다. 그 작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공존의 사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



길고 길었던 여름을 마치며

사진 에세이 워크샵과 낭독회. 나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시간이었다. 글을 쓰고 나누는 일이 이렇게 즐거운지 새삼 깨닫고 있다.

작가님을 비롯한 수업에 참여한 10명의 회원분들. 우리 겨우 4번밖에 보지 못했지만, 어떻게 이런 유대감과 따뜻함을 나눌 수 있었을까. 마치 우물가에 둘러앉아 서로를 토닥이며 위로하는 듯한 따뜻한 연대를 나눴다. 오랜만에 느낀 깊은 위로였고, 그 감정과 시간이 참 소중한했다.

우물가에서 함께 열심히 물을 길어올린 우리들. 역시 속 깊은 얘기를 글로 쓸 때 그 시원함과 해소되는 느낌을 모두가 공유한 듯 하다. 내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서로를 돌보고, 함께 울고, 눈빛으로 다독이고, 함께 글을 쓴다는 것의 힘을 절감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동기가 되었기를,

그 변화를 매주 체감하면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중요함과 시너지, 에너지를 느꼈다. 스스로의 성장에도 뿌듯하고 다른 사람의 성장을 보며 함께 기뻐하는 일을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다. 성장만 강요하는 사회라서 성장이란 단어 그만 쓰고 싶지만, 한 명 한 명의 우리가 정말 성장했기에 이 단어를 쓸 수 밖에 없다. 다들 너무 존경하고 감사하고 덕분에 매주 일요일이 기다려졌다. 당장 다음주부터 노잼이어서 어떡하지? 서로의 글이 점점 더 풍성하고 단단해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앞으

로 이어질 후속 모임과 결과물들이 더욱 기대된다. 마르지 않는 우물가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길어올려 나가기를 바란다.

뻑- 버스에 몸을 싣었다. 일주일 중 가장 삶이 지루하다고 느껴지는 어느 수요일,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오후 6:43 퇴근 시간. 주 4일제는 대체 언제 진행하는걸까? 생각하던 중 지이잉- 휴대폰 단체 카톡방에 알람이 울렸다.

안녕하세요! 팀 사포의서재입니다...

과제: 나를 소개하는 에세이 (분량 : A4 반 장에서 1장 사이) ...

읽자마자 눈이 커지고 휴대폰 화면을 뚫어져라- 하고 보았다. 누가봐도 놀란 사람의 표정. 이윽고 하하하고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수업도 안했는데 과제라니... 난감했다. 과제가 있다고 공지에 적혀있었긴 했지. 이왕 하기로 한거 해야겠지 하고 스스로 마음을 다독였다.

가만 있어 보자, 어떻게 소개하는게 좋을까? 서울사는 9N년생, INTP, 고양이 2마리 키우는 하울입니다. 아냐 아냐, 이건 너무 뻥하잖아. 키 160 땅딸보에, 오른쪽 얼굴 코와 턱에 점이 있습니다. O자 다리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음.. 첫 만남에 콤플렉스 얘긴 좀 그런가? 일단 첫 번째로 외적인걸 소개하고, 두번째로 내적인 성격같은 걸 소개를 하고, 마지막으로 취향을 소개해야겠다. 물고기자리가 자기소개를 그렇게 힘들어

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이구나. 이 것도 나고 저 것도 나인데. 어떻게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문장으로 소개하지? 단어였다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나열만 해도 되는데.

그나저나 단톡방에 있는 이 사람들, 어떻게 인사도 안하지? 이러다가 글도 내가 먼저 올리겠구만.

그렇게 고민 끝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해보았다.

외적 - 키 160 땅딸보에,

오른쪽 얼굴 코와 턱에 점이 있습니다.

O자 다리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내적 - 사회화된 INTP/ 낮 가림/

집에 혼자 있는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것(취향) - 털있는 귀여운 생물체(고양이),

게임(보드게임, 컴퓨터게임, 콘솔게임 등), 배우는 걸 좋아합니다.

최근에 EDC에 관심을 갖고 모으고 있습니다.

(EDC의 뜻은 Every Day Carry라고 매일 가지고 다니는 물건입니다.)

하울의 하루

25.08.30 날씨- 비온 뒤 맑음

툭- 툭- 투투둑—

계속해서 쏟아지는 비에 감은 눈을 떴습니다. 어슴푸레한 툭 다운된 파란 빛. 고양이들이 깨우지 않는걸보니 아직은 새벽임이 틀림없습니다. 쏟아지는 가을 비는 시원한 음악처럼 느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오후에 비가 개지 않을까봐 걱정을 하면서 말이죠. 날씨가 개야 수영장을 갈텐데...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커튼을 젖히니 빛이 따라- 하고 들어옵니다. 비온 뒤 맑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날씨입니다. 미세먼지 없고, 시야가 탁 트이는, 청명한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씨. 놀러가기 딱 좋은 날입니다. 역시, 나는야 날씨 요정. 짐을 챙겨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마포구에 있는 난지한강수영장. 오늘은 풋살팀에서 MT로 수영과 캠핑을 하는 날입니다. 듣기만해도 설레는 단어가 두개나 붙어있다? 이걸 못 참지~

처음 가보는 장소는 언제나 설렘을 줍니다. 와아- 구름 맞

집이네~ 하면서 재빨리 자리를 스캔하여 자리를 잡습니다. 가방을 던져두고 매점으로 달려갑니다. 매점에서 맥주와 나초를 팝니다. 이런건 또 먹어줘야 제 맛입니다. 바삭한 나초에 살짝 매콤한 소스—그리고 시원한 맥주 한입. (알고보니 눈알클맥주였지만.)

아이들이 놀기 좋은 곳이라 소문이 나있어 정상 가족들이 많았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팀원들과 재미지게 놀니다. 수영을 잘하는 만능체육인 팀원1이, 짤에서 본 것처럼, 자유형-배영을 회전하면서 수영합니다. 저게 되네? 나도 해보자. 자유형-배영 연습을 하고 수영장 물에 풍덩. 물 밖에 소리는 노이즈 캔슬링한 것 마냥 멍멍하고, 코로 물이 들어가 머리가 살짝 아픕니다. 그래도 재밌습니다. 노는게 제일 좋다는 뽀로로가 되고 싶은 꿈에 한발짝 다가간 느낌입니다.

쉬는 시간.

투명한 비치볼을 풋살 공처럼 차고 놀니다. 우리가 노는게 재밌어 보였는지 감자처럼 조그만 얼굴에 눈이 맑은 남자 아이가 같이 놀자며 다가옵니다. 팀원1이 공을 차서 넘겨주니, 아이도 곧잘 공을 차며 놀니다.

쉬는 시간이 끝나 수영장으로 가려고 하니 아이가 형(팀원1) 이랑 더 같이 놀고싶다고 말합니다. 형 아니고 누나야. 엄마한테 허락받고 오라는 말에 후다닥 하고 뛰어갑니다. 귀여운 녀석.

수영장에서도 아이와 비치볼을 하며재밌게 놀고있는데, 어? 무지개다! 라고 아이가 말합니다. 이 녀석,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알았지?라고 생각하며 아이가 가리킨 곳을 보니,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가 수영장 위에 떠 있었습니다. 무지개를 몇 번 본 경험이 있지만 볼 때 마다 경이롭고 예쁜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니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찾으러 왔습니다. 고맙다며 인사하고 어머니와 손잡고 사라지는 감자처럼 작은 아이.

잘 살아라.

젠 어디가서든 먹고 살거야라고 말했던 팀원2의 말이 머릿 속에 맴돕니다.

언젠가 엄마가 빨래를 접다가 웃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놀이터에서 놀다가 가끔 친구들 데려왔는데, 기억나?

내가?

그래~ 엄마 친구들 데려왔어. 아이스크림 있어? 하고 물어보는거야. 딱 봐도 너보다 덩치도 있고 키도 커서 친구는 아닌거같은데 생각했지.

그래? 그래서 어떻게 했어?

어떡하긴. 아이스크림을 주면서, 넌 몇 살이니 물어보니

9살, 10살이라고 하더라. 너는 6-7살인데. 참 웃기는 짬뽕
이야.

나는 내가 내성적이라 생각했는데 언제 바뀔걸까하고 생
각하는 한편, 그런 작고 오래된 기억이 엄마를 웃게 했다는게,
인간은 추억을 먹고산다는 말과 딱 맞는 경험이라 기억에 남
았습니다.

감자같은 아이와 어머니에게도 그런 추억이 되었으면.



무상(無常)

하얀 나비가
이리로
하얀 나비가
저리로

어매는
아부지
저보러
왔어요

하얗게 분칠한 할매
누굴 만나러 가는지
꽃단장이네

분홍 립 바른 할매
누굴 만나러 가는지
꽃다발이네

하얀 나비가
이리로
하얀 나비가
저리로

할머니
저보러
왔어요

대렴(大殮) 후의 모습은 영락없는 꽃다발이었습니다.

천천히 걷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뛰어온 거였어요. 절대로 멈추는 법이 없었거든요. 내 왼쪽에 있던 아이는 저랑 비슷했는데 어느새 저를 앞질러 갔네요. 그 때 깨달았죠, 새치기가 가능하구나 하고. 당시에 제 나이가 열 여덟 살이었어요.

오른쪽 사람은 저보다 앞인줄 알았는데, 어느샌가 제가 앞질렀네요. 이런, 새치기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말이죠 어쩔 수 없죠. 제 힘이 역부족이네요. 그나마 다행인건 제가 걸어왔던 그 순간의 순간, 순간 속에 순간, 혼자 걸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길에서 마주친 수 많은 사람들. 흠, 이름이 뭐였더라..?

찡든 모두 다 웃는 얼굴도, 우는 얼굴도, 무표정한 얼굴도 사랑스럽네요. 조금만 더 잘해줄걸, 조금만 더 말을 예쁘게 해줄걸, 조금만 더 참을걸, 조금만 더 이해해주고 용서할걸...

이런 생각들이 머리 속을 스치긴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깐요.

혹시 일본의 나카니시 마야라는 사람 아세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이란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게 아니라, 그 빗속에서도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라고.

저는 폭풍 속에서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춤을 배우려고 했을까요?

이만가야겠죠.

당신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죽음을 향해 걷고 있다는 것을.

잊지마세요, 순간의 아름다움을.

2016. 9. 11

만약내가지금당장죽는다면

- 작고 허름한 가게 장부
- 비 오기 전이나 후에 그 냄새
- 갓 지은 밥에 짹짹한 김을 먹을 때
- 거기다가 참치 김치찌개
- 지나가는 강아지가 나에게 반갑다고 꼬리치는 순간
- 좋은 음악을 발견한 순간(한국반복재생)
- 지금 이 순간, 영화 속 한 장면 같다고 생각이 들 때
-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날 쳐다보는 순간
- 눈부처
- 자리를 양보했을 때 들은 고맙다는 인사
- 맑은 하늘에 별을 발견한 순간
- 어제 보았던 그 별인 순간

- 까치가 아침 인사 할 때
- 꼬까옷 입은 날
- 어떤 경험으로 추억이 회상되는 순간
- 꽃피는 봄- 여행을 가기 위해 현관문을 여는 그 순간부터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 사실 짐싸는 그 순간부터
- 음악으로 사람과 추억이 생각날 때
- 갓난 애기를 보며 웃긴 표정지었더니 덩달아 웃을 때
- 책을 다 읽었을 때 해냈다는 그 느낌
- 월급 들어온 날
- 누군가에게 존재 자체만으로도 힘이 될 때

이병률 작가의 <내 옆에 있는 사람> 읽고

할머니는 누구를 만나든 나를 “우리 딸의 딸이야”라고 소개했다. “손녀시구나?” 되물어보면 “응, 우리 딸의 딸.”

할머니는 다정하다. 엄마는 평생 따뜻한 사랑을 못 받아봤다며 모친을 차가운 사람으로 매도하지만 딸의 딸로서 평하자면 나와 피를 나눈 사람 중에 가장 다정하다.

보편적인 외할머니의 사랑, 그러니까 손수 밥상을 차려주며 인자한 미소를 짓는 사랑과는 거리가 있지만. 젊어서는 식모를 두고 나이 들어서도 딸에게 살림을 맡기다 보니 당연히 요리를 못하는데 나는 할머니가 해준 밥을 먹어보지 못해서 섭섭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매사에 호탕하다가도 본인의 요리 실력이 조금 부끄러운지 엄마가 만들어둔 반찬을 자신이 했다고 우기는 귀여운 구석을 좋아했다.

엄마는 나보다 한 뼘 작고 할머니는 엄마보다 한 뼘 더 작아서 우리 셋이 서 있으면 도,레,미 실로폰 건반 같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중 제일 걸음이 빠른 건 할머니이다.

나는 키에 비해 보폭이 커서 사람들과 걸으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선두에 서게 되는데 할머니와 걸을 땐 언제나 종종 걸음으로 쫓아가기 바빴다.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기 전까지는 그랬다.

이태원 대로를 걸었다. 그맘때 우리는 키가 비슷해서 손을 잡고 다니기 참 좋았다. 엄마가 못 먹게 하는 콜라나 믹스

커피를 몰래 먹게 해준 것도 할머니였고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싸움 필승법을 가르쳐준 것도 할머니였다. 일단 크게 소리를 질러서 기선을 제압하고 싸움을 시작하라는 조언을 해주던 할머니는 공부는 못해도 괜찮지만 싸가지 없는 건 안된다고 이야기 하기도 했다. 사람이 많은 길에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옆에서 부끄러워하는 나에게 “뭐 어때”라며 호탕하게 웃다가 더 크게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었다. “할로, 핫츄어 네임.” 한국어 악센트가 목직한 영어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말을 걸기도 했다. ‘스카트가 너무 길면은 썬넨되지가 못하기 때문에’ 교복 치마를 줄여주던 사람은 숨겨둔 담배를 보고 “너 담배피우지? 엄마한테는 말 안 할게” 하면서 푸슬푸슬 웃기도 했다.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믹스커피를 마셨다.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음료는 다 마시고 나서도 달짝지근한 뒷맛이 입안에 남아있었고 눈 뜨기 힘들 만큼 눈꺼풀이 따가운 날에도 그래도 돼, 뭐 어때,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말들을 입안에서 굴릴 수 있었다. 그날 몇 보를 걷든 할머니가 내 손을 잡고 돌아가던 곳은 그의 침상 옆 소파였기 때문에 어디에도 가기 싫어 제자리를 뱅뱅 돌던 날에도 나는 우리집으로 돌아갔다.

이 모든 것은 할머니와 내가 한강진역에서 이태원역을 지나 녹사평역까지 이어지는 큰 길과 그 사이의 골목길을 걸으

며 이태원을 누비던 때의 기억이다.

할머니는 아내를 드리야, 하고 부른다. 이름을 한국어로 쓰면 오, 드, 리 세글자가 되기 때문에 한국인처럼 뒤의 두글자만 따서 부르는 것이다. 할머니는 아내를 좋아한다.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다. 내가 드리를 많이 좋아한다고, 우리가 연애하고 있고 결혼할 거라고 말할 때도 좋아했다. 엄마는 어차피 할머니가 기억 못 하니까 말한 거잖아, 하고 툭 던졌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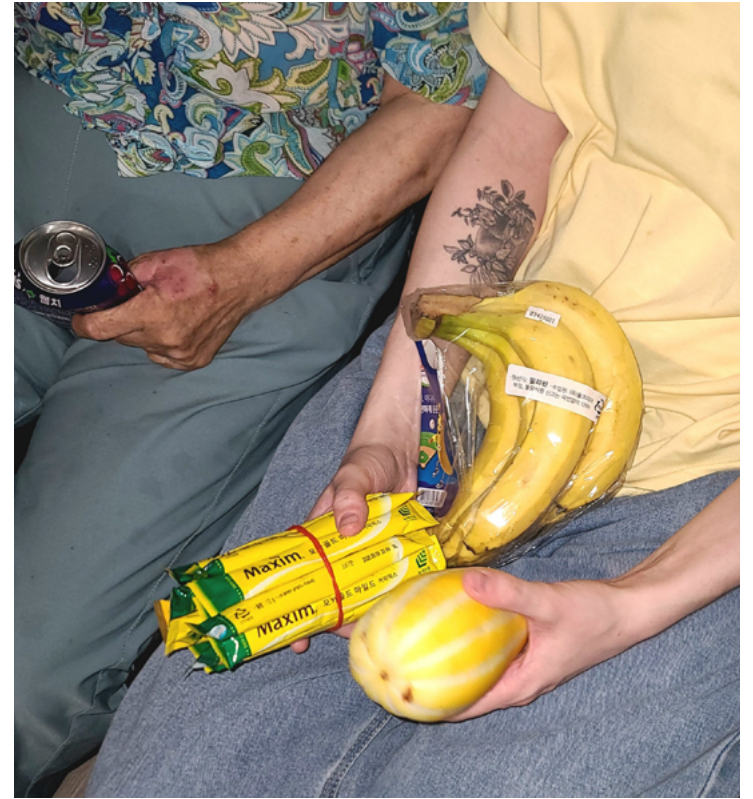
기필코,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아니라고 말한다. 할머니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좋아해주는 사람이니까 말한거지. 엄마가 뭘 알아. 뭐든지 들어주는 사람한테는 뭐든지 말하고 싶어지는 법이다. 그건 할머니가 오늘의 고백을 내일은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어도 변함없다.

할머니는 ‘호모’가 무엇인지 알지만 그 단어를 멸칭으로 쓰지 않는 사람, 모두가 문식이라고 부르던 옆가게 사장을 그녀가 원하는대로 문자라고 부르던 사람. 초대받지 못한듯 불편하게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먼저 말을 건네던 사람은 트랜스젠더와 외국인과 미군과 호모가 다니는 이태원 거리를 딸의 딸과 걸었다. 손을 잡고 걷는 동안 나는 할머니의 빠른 걸음에 맞추어 걸었다. “뭐 어때” 싶은 것들은 뒤로하고.

아내와 본가에 갈 때마다 다발로 묶은 믹스커피를 내미는 할머니와 그 앞에서 눈을 맞추기 위해 몸을 절반으로 접은듯

한 아내를 볼 때, 혹시나 갑자기 나의 본가에 갈 일이 있을까 봐 할머니가 좋아하는 ‘스니커즈’ 초콜렛을 가방에 넣어다니는 아내가 내 가방에도 같은 초콜렛을 넣어두는 것을 볼 때 그동안 걸어온 이태원을 떠올린다. 내 걸음이 남들보다 빠른 이유의 반절은 급한 성격 때문이고 나머지 반절은 이태원을 누비던 그때를 다리가 기억하기 때문일 것이다. 언제나 저녁식사 자리에 가장 마지막까지 앉아있는 아내와 할머니가 큰 소리로 노사연의 <만남>을 열창하는 것을 듣고 있노라면 확신이 든다.

이태원 바닥에서 평생 미제만 고집하며 살아온 할머니. 똑같이 땅콩 들어간 초콜렛인데 ‘자유시간’은 먹지않고 ‘스니커즈’만 먹을만큼 미제를 좋아하는 할머니가 손주며느리(혹은 손주사위)도 미제면 좋아하지 않겠냐는 실없는 생각을 하다가 그만둔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1994년 설립 이후 30여 년간 여성 성소수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삶을 지지해 온 인권 단체입니다. 회원 중심 단체로서 서로를 돌보고 연대하며, 성소수자의 존재를 사회에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여성이자 성소수자라는 정체성 때문에 겪게 되는 복합적인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에 깊이 주목합니다. 이러한 교차적 현실 속에서 발생하는 배제의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제기하고, 변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와 긴밀히 연결되어 활동하고자 합니다.

<https://lsangdam.org>

우물가의 여자, 여자들

2026년 1월 25일 1판 1쇄

기획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자문 황예지

글쓴이 쿠, 노을, 마셀린, 예지, 유자, 조, 채원, 하울, 화자

전자우편 lsangdam@hanmail.net

© 쿠, 노을, 마셀린, 유자, 조, 예지, 채원, 하울, 화자

이 파일은 포토에세이 워크숍 ‘우물가의 여자, 여자들’(2025)의 결과를 담은 기록집

[우물가의 여자, 여자들] 가운데, 공유를 허락한 필자들의 글을 피디에프로 만들었습니다.

이 책에 실린 글은 무단 전재, 복제할 수 없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있어야 합니다. 사용을 원하시는 분은 한국레즈비언상담소로 연락 주십시오.